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설공단

일시 2017년 11월 13일(월) 오전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 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이사장 이지윤.

○위원장 서영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지윤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공단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은 정권교체와 함께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우리 공단 역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정책을 기반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경영을 제1의 핵심전략 기조 아래 다양한 훈련과 시스템 마련을 통해 안전역량을 내재화하여 이용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기관과 시민들이 함께 협치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경영을 추구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9년 연속 고객만족도가 상승하는 기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빅데이터를 통한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민간기업과 협업으로 비예산 프로그램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등 경영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청탁금지법 발효로 인한 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청렴아카데미 교육 등 청렴도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부패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열린 소통과 공감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직원 워킹맘 등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하였고, 직원들이 직접 형식적인 제도를 과감히 제거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와 일 가정 양립제도를 활성화시켜 즐거운 일터를 구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공단은 올 한 해도 직원들의 행동규범과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고 기관명을 개정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륜 그리고 혜안으로 공단이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권수 상임감사입니다.

박관선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윤기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황영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장희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이효재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 이문호 감사실장입니다.

정국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병윤 인사처장입니다.

안찬 총무처장입니다.

황택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고민희 안전관리처장입니다.

문태영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박호영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용노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박정우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이상일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이강오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김태임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이강윤 도로시설처장입니다.

배응수 도로환경처장입니다.

손병일 교통정보처장입니다.

전용덕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강창구 공사감독2처장입니다.

김창헌 공사감독3처장입니다.

남궁석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임근식 상수도지원처장입니다.

전기성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백인걸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공형만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이순형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단 주요업무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9월말 기준으로 총 3,280억 원 예산 대비 68.6%인 2,25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세외수입 실적으로는 1,884억 원 목표 대비 82.5%인 1,554억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단의 올해 주요성과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제1회 공공부문 스마트오피스 우수 사례 분야에서 협업, 소통, 그리고 창의적인 사무공간, 직원 휴게공간과 더불어 시민 서비스공간 조성을 인정받아 공간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부패시책평가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률은 금년에 4.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역시 9년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협업을 통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새롭게 주력한 사업입니다.

4차 산업에 대한 전사적 역량 및 기반을 구축하고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사물인터넷 도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직원, 워킹맘 등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등 직원들과 다양한 감성경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초 캐치프레이즈 ‘ 안전을 누리고 서울을 즐기다 ’ 와 행동규범을 설정하여 조직 몰입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설공단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기업브랜드 제고 및 조직문화 혁신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8쪽 상가운영처입니다.

9쪽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신당 지하도상가 점포 내 천장 마감재를 교체하고 LED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승강기 안전사고를 대비한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기존 기관통합 방식에서 단독으로 발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근무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재해 상황별 대처 교육과 화재대응 및 피난 종합훈련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대응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인과 함께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월과 10월에는 상인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진출하여 청계광장에서 제품판매, 문화공연 행사를 펼쳐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종각, 을지입구 등 총 4개 상가 대상으로 상인이 제안한 사업을 특화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신규 임차인 선정 등 공유재산 운영질서 확립에 있어 올해 계약만료 되는 종로4가를 시작으로 신규 임차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로4가는 지난 8월 69개 대상점포의 입찰을 완료하였고 12월에 만료 예정인 을지입구 등 6개 상가에 대해서는 계약종료 시기에 맞춰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불법전대를 단속하여 총 150건을 조치완료 하였고, 향후 투명한 임대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모시설운영처 업무추진입니다.

13쪽, 먼저 지난 8월 시립묘지 진입로 옹벽에 미술벽화를 입혀 시민에게 편안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망우공원 사색의 길 약 2㎞ 구간에 LED 등기구 66개 등과 공원등주 53본을 설치하여 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우리공원 관리소부지 연면적 2,137㎡에 망우리의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웰컴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차 투자심사를 지난 7월에 완료하였고 국제 현상설계 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학술전시 행사 3개 분야로 2017 생사문화주간 행사를 지난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장례문화에 대한 관점과 선진장례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장례문화가 올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래 화장수요 대비 선진화장로 개발 R&D 사업을 지난 ′15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지난 6월 제작이 완료되었고 현재 시운전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입시기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지속적으로 운전원을 증원하고 운행효율을 높이려 노력해 오고 있으나 이용객의 지속적 증가로 아직도 대기시간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앱에 도착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출입구 경사도 등 편의시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전원 퇴근시간대 장기대기 수행콜 관리지역을 4개 지역에서 용산구 등 3개 지역을 추가 확대하였으며, 휴무전담 파트운전원 142명과 시 뉴딜일자리 11명을 운영하여 차량 운행률을 제고하였습니다. 결과 탑승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증가하였으며, 이용시민 만

족도 역시 전년 대비 0.8점 상승한 85.1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의 차량정비 소모품 주기 알림시스템 기능을 통해 안전운행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손잡이와 후방카메라 등 차량 부가장치 개선과 적정 주행속도를 초과할 경우 경고음을 표출하게 하는 등 교통사고 저감 노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날 무료운행, 장애가족 나들이 행사, 그리고 다인승 버스를 활용한 시티투어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본부 사항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1쪽 보시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에서 직장인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아마추어 리그를 진행해서 시민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흑자 경기장으로서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제행사 경험이나 시설 사후관리에 대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는 이집트 알아람신문사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등 세계 각국에서 방문하여 우리 경기장의 모범사례를 세계적으로 전파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하단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에는 공공체육시설의 가치와 역할이라는 컨퍼런스를 체육학회와 함께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체육시설의 현 실태와 미래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남측 유휴부지 744㎡를 다목적 운동장으로 조성하여 운동장 2면과 휴게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무료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4회 이용하였고, 내년부터 원가조사 후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채광기를 제작하고 롤잔디 식재장비 개발, 잔디관리 표준매뉴얼 수립 등 잔디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없지만 최근에 제기된 잔디관리 문제점에 따라 월드컵경기장이 조성된 지 15년이 경과한 지금 상황에서 노후화된 잔디에 대한 종합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돔경기장운영처입니다.

24쪽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년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하판매시설 관리에 리스크도 발생하였습니다. 올 초에 지하판매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한 전문업체와 공단 승인 없이 입점한 점포주와의 문제가 대두되어 계약해지 등 행정처리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마무리하여 사용·수익허가 취소점포 등에 대해 MD를 재구성하고 지하1층 야구기념관 조성 등 활성화 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테러에 대비하여 행사 시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방재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하다는 결과를 도출받았습니다.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테러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보행광장에는 간이공연장과 캐노피를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확보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난 3월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적인 야구장으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빅뱅, 방탄소년단,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엑소 등 대형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안전사고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업무 추진입니다.

27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민과 함께 어린이공원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지구를 위한 동물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의 요구분석과 공원 포지셔닝 등을 거쳐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여 이와 연계한 축제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기 어린이위원회 51명을 운영하고 어린이대공원 자원활동가 48명을 양성하여 어린이와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능동적인 공원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교통약자층을 배려한 1.19㎞의 숲 산책로를 무장

애 나눔길로 조성하였고 나무실로폰, 나이테 관찰모형, 숲속교실 등을 구성하여 즐거운 체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니세프와 협업하여 노후화된 모험의 나라 놀이터를 리모델링하여 워터하우스, 모래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선진 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연 그림책 콘서트, 선화예고와 함께 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작품전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IoT센터와 함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공원으로 거듭나는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9쪽 보시겠습니다.

동물원을 활용한 환경문제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바다동물관 내 폐품을 활용한 동물보호 전시물을 설치하고 먹이 무단투기 금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금지 등 인식개선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도 하였습니다.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김상훈 부위원장님 등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동물병원 장비도 현대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식물원과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쪽 청계천관리처 사항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상패션쇼, 판잣집 테마존 등 계절별 시민참여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일상 속에 음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서울거리아티스트와 공연 등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도심 속에 흐르는 푸른 쉼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종합상황센터를 본사로 이전하였고 신답철교부터 중랑천 합류부 1.8㎞ 구간에 보안등을 60개 설치하였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청계광장과 다산교, 비우당교 등 5개 복개박스 내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통교부터 새벽다리에 노후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하고 유지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수약품 자동투입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본부 사항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사항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본부는 공단에서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항상 인지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홍지문터널, 구룡터널, 도로순찰대 상황실 3개소에 24시간 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경인지하차도 등 26개소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창원터널 차량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단이 관리하는 터널 3개소에서 유관기관, 시민 149명이 참여한 합동소방훈련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재단과 협업하여 자동차전용도로 공사장 안전시설 및 작업자 근무복 디자인을 개선하여 12월부터 현장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내 500m 이상 터널인 홍지문ㆍ정릉ㆍ구룡터널 내에 DMB를 설치하였고 강변북로 한강대교부터 성수대교 구간 7.6㎞에 LED등 71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상 가로수 위험 수목을 제거하여 쾌적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작년 6월에 정릉천고가교 중대결함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PSC교량에 대한 유지방안 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실시했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1일에 PSC교량 관리방안을 토론하는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출된 안전점검 매뉴얼을 개정하고 긴장재 정밀조사방법 등 세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특히 정릉천고가교, 두모교 추가 긴장재 설치 등 PCS박스거더교 안전강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설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내부순환도로 등 9개 노선 88.89㎞ 구간 내 제설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전진기지 3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정보처 사항입니다.

도로전광표지에 사고지점 및 차로차단 정보를 기호화,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를 숫자로 표시하였고 올

림픽대로 19개소와 동부간선로 14개소 차로제어기에 픽토그램으로 정보를 표출하여 이용시민에게 정확한 교통정보를 인지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ITS 200개소 등에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169개소는 평가 완료하였고 나머지 39개소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시 교통정보과 주관으로 VMS 26대와 LCS 19대 등 노후 교통관리시스템 성능개선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시설안전본부 사항으로 도심지공사감독 업무 추진입니다.

42쪽입니다.

공사 안정성 확보 및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통합가이드라인을 설계하여 사전심사제를 운영 총 148회를 심사하여 175건의 부적합 사항을 지적 보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지공사 안전감독관을 운영하여 하도급 관리 등 총 130건의 사전예방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사감독의 청렴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수제를 도입하고 공사감독 이력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43쪽 공동구관리처와 상수도지원처 사항입니다.

공동구관리처는 국가보안시설로 상시 재난안전에 대비하여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여 9월 현재 37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동, 가락, 개포공동구에 상황감시용 CCTV를 각 5대씩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상수도지원처는 현장관리소 근무환경 개선과 근무시스템 개선 등으로 수도계량기 교체율이 전년 동기 대비 34% 향상된 20만 3,00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본부 사항입니다.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먼저 세종로, 마포유수지, 을지로 공영주차장에 범죄예방 디자인 등 맞춤형 디자인사업을 서울디자인재단과 협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에 주변 지역개발과 주차쏠림을 고려하여 수서, 구로디지털, 학여울 주차장은 급지 조정하였고 방화로, 개화산 주차장은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추진하면서 시행 2개월 전부터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이용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주차장과 차고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주차장 2개소와 차고지 2개소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순차적으로 보강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교통시설운영처 사항입니다.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는 지난 9월 정상화됨에 따라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바로 잡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MD 성공모델 및 우수상인 유치방안 마련 등 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구청 및 중소기업청과 협업하여 바이어 쉼터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디자인패션위크 기간 중 동대문 스트리트 패션쇼에 참여하는 등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혼잡통행료 징수단말시스템 소프트웨어 재개발 및 미납차량 통과 시 경광등 작동, 전광판에 미납사실 표출 등 미납차량 인지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51쪽 공공자전거운영처입니다.

2만 대 따릉이 확대 구축에 따른 이용 활성화와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8월까지 자전거 1만 1,600대 확대와 대여소 896개소를 구축하였고, 올해 말까지 잔여 자전거 8,400대와 대여소 380개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따릉이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대여소별 이용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배송, 근무인력 조정 등 적용하고자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능개선 중에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각 25명의 시민이 대여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고 방학기간 활용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자전거를 관리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협업하여 안전운행 홍보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 패트롤을 운영하여 안전한 공공자전거 이용캠페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전략본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4쪽입니다.

공단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임직원 대상 IoT, 빅데이터 등 교육ㆍ특강을 실시하였고 서울디지털재단, 서울도시데이터사이언스와 협업으로 현재 공공자전거 빅데이터를 분석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이 IoT 실증사업장으로 선정되어 AR을 이용한 길안내 등 6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코자 준비하고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와 근로자이사 선임 등 정부정책에 기반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입한 BCMS(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와 연계하여 전사적 안전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지하도상가 화재발생 대응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55쪽 보시겠습니다.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아카데미교육과 사내강사를 확충하였고, 직원이 직접 청렴수기를 작성하는 등 보다 재미있게 청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청렴 자율실천 가이드북을 배포하였고, 상담채널을 마련하여 청렴한 공단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입니다.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현장직원과의 소통 강화를 실시하여 소중한 직원들 의견을 반영하여 공단 내 워킹맘, 신입직원, 현장직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업무와 형식적인 제도를 제거할 수 있도록 GO - STOP - CHANGE 계속 가야할 제도, 없애야 될 제도, 바꿔야 할 제도의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힐링프로그램과 휴연수 프로그램으로 감정근로자의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기초직무, 사회공헌 역량 제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본이 탄탄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진 이지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러면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일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돔구장 개장 이후 누수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발생 횟수만 나왔지 어느 장소에서 됐는지, 같은 장소에서 또 누수가 되었는지가 안 나왔어요. 그것을 주셔야지 이것이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발생 횟수는 나왔는데 발생장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원 57건 438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3,000만 원 이하 업체는 대행업체가 어디인지가 안 나왔어요. 3,000만 원 이상만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4개는 나와있는데 나머지는 안 나와있어요, 어느 대행업체에서 했는지.

그리고 지금 자문위원 운영하시고 있잖아요. 자문위원들 수당 얼마 나갔는지와 회의록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밤 1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임원, 임직원 업무카드 사용한 것 있지 않습니까? 11시 것은 괜찮은데 12시 넘어서 결제된 것부터 익일 08시까지 사용한 내역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사회 회의록은 지금 저한테 안 주셨거든요, 제가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회의록이 없는 것입니까? 요약본만 있는 것입니까? 이사회 회의록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 회의록은 안 주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제출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안 주셔서요.

그다음에 이따 감사님, 3년간 직원 징계현황 꼼꼼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요. 직원 징계 17번 교통사고 및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사고 보고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공공자전거 유지관리비용 유형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3년간 청계천 안전사고 유형별, 그리고 동기간 민원접수 유형별로 각각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관리 업무 중에서 잔디보수 내역, 그리고 관련 세출내역, 잔디 구분, 사용 잔디 장단점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이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대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자문단을 구성하셨죠? 이 전문가 여덟 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다음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 박진형입니다.

2017년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업무상 횡령 건과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 정직 6개월 줬네요.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기관운영 종합감사 했을 때 주차료 수입금 금품횡령 건이 있어요. 관련해서 해고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보고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먼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동료위원께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고척돔구장의 유지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9월까지입니다.

○성중기 위원 내년 9월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성중기 위원 지난번 2016년 ′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던 누수현상은 그것이 집중호우라든지 아니면 강풍 때문에 그런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니죠? 일반적인 우천으로 인한 누수 발생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전체적인 강우량이 많았다기보다 일정시간대에, 지난번 8월에 발생한 것도 30분간 구로지역만 약 15㎜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집중호우라든지 홍수 이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태풍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기상변화에 대비할 수 있으려면 건축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전하게 지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2018년 9월까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끝나기 전에 이런 누수가 자주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결국 유지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공단의 재원으로 이것을 다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세요? 벌써부터 비가 여러 군데에서 새고 이러는데, 대단한 폭우도 아닌 이런 기후에 견디지 못할 정도면 앞으로 우리가 예견되는 건축 구조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고척스카이돔은 아시다시피 입지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어쩔 수 없이 배수관로를 경기장 내부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발생하게 된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8개소를 다 폐쇄조치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보수보강만 했었는데요.

이것이 집중호우가 있어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저희가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기가 돌아오면 같은 하자가 계속 발생될 때는 9월 이후에도 하자보수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요청으로는 안 됩니다.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면 법적대응을 해서 책임을 물든지 이렇게 소송으로 야기될 수도 있고 한데 결국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시공사의 잘못으로 계속 비가 샌다든지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하자보수가 끝나고 나면 그분 책임이 아니고 소송을 해서 하든지, 저는 유지보수가 만기가 되기 전에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유지보수기간을, 지금 이렇게 벌써부터 하자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몇 년 동안 더 연장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추가계약 이런 것은 할 수 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그것은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시공사와 우리 공단 간에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에 이것이 법적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재원 내지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성중기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 우리 교통공사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공공자전거를 우리 공단에서 넘겨받고 실제 운영해 보니까 이사장님 보기에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됩니까, 공공자전거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일단 지금 이런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시일에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확충을 계속해 나가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 중의 하나는 안전사고, 안전사고가 계속 이용이 증대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음주 자전거 사용에 대한 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정책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집중되어 있는 곳에 자전거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디지털재단 공공데이터센터와 같이 해서 지금 고도의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했다시피 이제 안전교육에 대한 문제가 좀 미비하다, 그래서 이용자가 사고로 이어졌을 때 우리 공단에 대한 이용자와 우리 관리하는 주체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그런 안전사고도 안전사고지만 현재 우리 유지보수가 연간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성중기 위원** 앞으로 8,400대 정도 더 추가하면 유지보수는 더 늘어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성중기 위원** 현재는 자전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교적 자전거가 양호한 상태인데 앞으로 내구연한이 다가오면, 기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는 더 늘어날 텐데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손망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따로 할 수 있습니까? 이용하다가 넘어져서 자전거를 망가뜨렸다든지 파손했을 때 우리가 따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성중기 위원**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일단 분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16년, ' 17년 다 해서 총 88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회수하였고 지금 10대 정도가 분실 상태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앞으로 분실이라든지 파손이 훨씬 더 늘어날 텐데 이 부분을 회수했으니 다행이지 회수 못 하고 완전히 분실로 끝나는 경우라든지 또 이용자가 타이어라든지 어쨌든 기기 자체를 파손해서 반납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은 일단 그 이용자 부주의…….

○**성중기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성중기 위원** 누구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입니다.

○**성중기 위원** 처장님이 대답해 보시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현재 손망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분실이 지금까지 운영한 이후에 10대 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경찰청에 지금 미제처리로 수사 중에 있고, 고장 난 경우에는 회원들이 고장 낸 경우에는 연락처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유를 묻고요. 그게 여러 사람이 타기 때문에 누군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모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하는데 수리비용은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발생하지 않고요.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비회원 같은 경우에는 1일 회원이 사용하는 경우에 자료가 남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비회원이 망실처리하고도 신고 안 한 경우는 없고요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그런 비용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따릉이가 2만 대까지 확대된 이후에 따릉이에 어떤 기업후원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부분을 서울시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처장님, 잠깐 계셔보세요, 같이 필요하면 답변을 받게.

이 공공자전거 운영 취지가 원래 대중교통하고 연계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사장님? 그런데 지금 앱이라든지 이런 이용자가 대중교통이 어디 가면 환승시스템이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떻게 환승하고 하는 것을 지금 연계할 수 있습니까, 공공자전거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직은 그렇게…….

○**성중기 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가 대중교통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아파트라든지 또 지하철역에서 먼 거리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이런 환승이 주 목적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자전거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서울시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려고요. 그래서 5월…….

○**성중기 위원**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5월 12일 저희가 카카오나 네이버하고 티맵과 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같이 회의는 했는데 1단계로 저희가 일단 네이버상에 대여소를 저희가 노출시키고요. 2단계 사업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티맵과 함께 노력해서 내년도 ' 18년도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을 추진해서 거치대 수, 자전거 수도 나오게 할 거고요. 3단계로 네이버에 카카오를 통해서 대중교통 환승정보를 연계시키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정보와 지하철, 버스 이렇게 연결시켜서 자전거와 버스 등 대중교통과 환승을 정보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공공자전거 대여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대중적인 외부 지도 앱이 네이버, 카카오 맵과 연계 중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치만 알려줄 뿐이지 거치대 수라든지 이런 정보하고 연계가 안 되잖아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정보…….

○**성중기 위원** 필요한 게 그 부분인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 18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 18년도에 추진하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공공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공정보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개방해 네이버나 카카오톡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포털에 개방해 주느냐를 검토해서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공공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우리 시에서 아마 시민편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되고 앞으로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공단에 넘길 때부터 사실은 불안했었어요.

이게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하게 정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넘겨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아까 얘기했던 대중교통을 위한 환승 조치 이런 것도 좀 제공돼야 될 것 같고요.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 또 일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자전거에 대한 수신호도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공단에서 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이게 확산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공단 이지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시설공단의 비전이 ‘ 시민중심의 도시기반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 ’ 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감 자리입니다. 행감은 소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향후 행정의 효율성을 이루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올 8월에 행안부에서 5개 광역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대상으로 경영평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신원철 위원** 그런데 여기 항목별 점수를 보니까 경영평가가 4위하고 다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내용 잘 알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지난 연도에 비해서는 순위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점수가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등급도 떨어지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경영평가가 정성적인, 그러니까 경영계획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정성 부분이 40% 그다음에 정량적인 부분이 60%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정성지표 부분은 5개 기관에서 1위를 했습니다. 다만 정량 부분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잃었던 부분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인데…….

○**신원철 위원** 네, 안전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이게 과거에는 50만원 이하의 대물, 대인 사고나 직원 사고는 제외되는 조항이었는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단사업 성격상 포트홀이라든지 장애인콜택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그 부분에서 거의 40점 이상 점수가 하락하게 돼서 안전 부분 때문에 등급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그 기준에 맞춰서 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올해 안전 부분은 한 40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내년에 평가받을 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신원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자료 1856페이지를 보면요, 1857페이지. 천천히 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신원철 위원** 1857페이지, 누가 찾아주신 분이 좀 바로 보시게끔 해 주세요.

2016년도 전략목표, 2017년도 전략목표 중대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신원철 위원** 중대사고 제로, 2015년도에는 안전사고 제로였어요. 이게 안전사고 제로에서 중대사고 제로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전략목표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바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에서 기준으로 하는 안전사고라는 것이 저희가 포트홀로 인한 발생이라든지 또는 어쨌든 시민들과 생기는 여러 가지 작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처리를 해 주게 되면 그게 안전사고 건수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해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표고, 더군다나 제로라는 것은 너무 현실성 없는 목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중대사고 제로는 현실성 있는 목표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중대사고는 사실 과거에 저희가…….

○**신원철 위원** 과거에는 중대사고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 지적사항을 받았었죠, 행안부에서 중대사고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신원철 위원** 올 8월에 이 지적사항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2016년도, ′17년도 중대사고 제로를 전략목표로 삼았을 때 그때 기준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중대사고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신원철 위원** 여기 있어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때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 공단이 과거에는 사육사 사고도 발생했고 이런 중대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근에 안전사고 부분에서 경영평가에서도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목표설정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경영성과 중에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안전사고 점수가 현격히 낮아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2013, 2014, 2015년 100점에서 2016년 79점으로 갔다가 ′17년도에 42.11로 가요. 그러면 내년 전략목표 중 하나가 중대사고가 아니라 안전사고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안전사고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번 평가에서 굉장히 큰 하락폭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렇게 낮게 받았으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대사고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한 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시정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다음에 문태영 상가운영처장님 계시죠? 나와 주십시오.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상가운영처장 문태영입니다.

○**신원철 위원** 올해 지하도상가 계약 만료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많죠, 연말에?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네, 연말에 6개 상가가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을지로입구와 청계5가, 그다음 명동, 회현, 영등포시장, 마전교 이렇게 6개 상가가 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게 다 중요한 데죠?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네, 일부 명동과 회현은 활성화 상가이기 때문에요.

○**신원철 위원** 올 6월에 종로4가 재계약했죠?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네, 입찰 끝났습니다.

○**신원철 위원** 여기 보니까 점포 전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었죠?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그렇습니다. 종로4가는 총 69개 점포가 대상이었는데…….

○**신원철 위원** 두 가지…….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상가단위입찰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어요. 했는데 일단 입찰동의서를, 서울시 정책에 동의하는 임차인은 저희들이 사전에 입찰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23개 상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23개 상가를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상가단위로 일반입찰을 부쳤습니다.

○**신원철 위원** 보통 지하도상가를 이런 식으로 2개 방식으로 상가단위, 점포단위로 하나요?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네, 조례상에 상가단위 입찰 또는 점포단위 입찰로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규정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해 왔냐 이거죠.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네. 이번에도 5월에, 그러니까 주로 저희들이 직영하는 상가 잠실지하광장이라든지 인현, 신당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인현이나 신당은 옛날에 2011년도에 상가단위 입찰을 부쳤을 때 4회까지 입찰을 부쳤는데 유찰이 되어서 그때 다시 점포단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당, 인현상가는 점포단위로 입찰을 해서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것이 두 가지 형태의 계약방식이 있다면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나요? 이게 낙찰가격이 달랐었죠, 상가단위와 점포단위?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렇죠?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네.

○**신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상인들에게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게…….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그것이 저희들이 방침을 세울 때 상가단위로 하는 이유는 활성화를 시키고자, 그리고 수탁법인을 통해서 관리를 일원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상가단위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는데요. 종로4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상가단위로 했을 때 임차인분들 거의 대부분이 승인을, 그러니까 좋아했었어요. 좋아했었는데 그분 중에 나머지 전 상인회장이 그 중간에 끼어서 입찰동의서를 공단에 내지 말고…….

○**신원철 위원** 그러니까 23개 점포만 입찰계약에 동의했던 거죠?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나머지는 전 상인회 회장에게 제출했던 거죠?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네, 제출했습니다.

○**신원철 위원** 전 상인회장에게 제출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그렇습니다. 결국은 점포단위 입찰을 했습니다, 46개.

○**신원철 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향후 연말에 여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줄줄이 해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 방법의 계약방식을…….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아닙니다.

○**신원철 위원** 아니죠?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기본적으로는 상가단위 입찰을…….

○**신원철 위원** 상가단위겠죠?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것이 이런 식으로 종로4가처럼 여의치 않을 때는 점포단위로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단 기본적인 방식은 상가단위 일반입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 지금 기존의 상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나 이분들을 저희들이 여섯 차례 정도 서울시와 공단과 이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신원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상가단위로 다 전부…….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기본적으로는 상가단위로 갑니다.

○**신원철 위원** 가는 게 좋은데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나머지 여섯 군데도, 특히 잘된다고 하는 명동이나 회현도 이럴 개연성이 있나요?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지금 6개 지하도상가 도래하는 상가는 특히 명동과 회현이 지금 활성화된 상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인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분들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결과는 입찰동의서 그러니까 상인 보호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 입찰동의서는 아마 제 판단에는 100%…….

○**신원철 위원** 왜 그러냐면 종로4가가 올 6월에 되었기 때문에, 물론 1차 신규 낙찰자가 포기는 했지만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낙찰차액이 또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상가단위와 점포단위 계약 시.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네, 달라집니다.

○**신원철 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이 종로4가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이러한 2개의 계약방식이 이후에 또 발생할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나머지 12월에 돌아오는 6개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보완책을 여러 모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4가처럼 그렇게 이원화가 될 가능성은 제 판단에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원철 위원** 그러나 개연성은 있다고 저는 보여요?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래서 이것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네, 맞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것이 1차 입찰 시 처음에 낙찰자 예가 대비가 188%였죠?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처음에 종로4가, 개인이 낙찰을 받았거든요. 결국은 포기를 했지만요.

○**신원철 위원**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계약포기를 했겠죠.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렇게 높게 들어오면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또 요구할 것 아니에요, 상인들에게?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맞습니다. 그게 불만이죠.

○**신원철 위원** 이것이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아니에요?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로4가도 겪어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그 보완책에 대해서. 그런데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주도 7차, 일곱 번째가 되는데 같이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무리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특히 연말에 여섯 군데가 몰려있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얘기 죽 들으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신원철 위원**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저나 박진형 위원이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올 연말에만 여섯 군데가 있고 내년에 다섯 군데 있고, 죽 이어집니다. 바람직한 것은 저는 2개 계약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상가단위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종로4가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다른 지하도상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성중기**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전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도 있고 증차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요, 장애인콜택시 민원사항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민원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1번이 대기시간, 2번이 불친절이에요.

이사장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모집할 때 기준이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일단 저희가 인ㆍ적성검사를 하고요, 안전운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실기시험을 얼마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근무조건이 경력이나 이런 게 있죠? 대부분 5년 이런 게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상훈 위원** 대부분이 택시면허가 있던 분들이 오시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대기시간도 대기시간인데 자,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배려와 복지, 편의를 위해서 이 장애인콜택시 운영제를 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본인들의 불친절한 그런 태도들, 가장 많은 게 난폭운전, 급출발, 반말하는 것, 제가 계속 이것 읽어보니까 민원내용에 끊이지 않아요, 최근 5년 동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장애인콜택시 담당자분이 누구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입니다.

○**김상훈 위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1,000건이 다 되어가요, 제가 지난 2013년도부터 지금까

지 보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지금 과장님이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처장입니다.

○**김상훈 위원** 처장님도 이것 보실 것 아니에요,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무슨 벌점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지속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불친절이 너무 많아. 불친절은 불친절이지만, 대기시간은 따로 얘기할게요. 불친절에 대해서는 아직도 끊이지 않아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것을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서 아니면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애인들한테 배려를 해 주고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훈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다행히 저희가 매년 친절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매년 상ㆍ하반기 워크숍 때 두 번밖에 이렇게 친절교육이나 이걸 할 수가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집체교육을 별도로 빼서 전 직원에 대해서 상시교육을 하고 있고요.

○**김상훈 위원** 상시교육도 중요하고요. 그 운전원에 대한, 개인적인 운전원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전원에 대한 평가를 연말에 실시하는데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는 20점 이렇게 점수를 줘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1건 발생할 때마다 1점씩 감점해 가는 이런 성과보상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10분 늦었다고 호통을 친다, 반말을 한다, 운전 중에 통화를 하고 짜증을 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방향지시등이 없이 막무가내로 운전한다, 탑승 거부한다, 이게 그 내용만 계속 반복돼요, 상습적으로. 이 제도 개선해야겠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인원을 뽑을 때도 그런 자질이나 역량을 보고 뽑으세요. 무조건 채용해서, 이게 뭐 사납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불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성검사라든지 심층면접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데, 저희가 정규 운전원 455명 이외에도 파트 운전원을 한 140명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파트 운전원들은 9개월 만 이렇게 운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훈 위원** 지난 9월까지의 자료가 지금 왔는데 그때도 보면 대기시간, 불친절 이게 다예요. 대기시간은 저번에도 내가 한 번 지적했는데, 근무인력은 지금 충원이 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차량대수도 늘어났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차량대수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훈 위원** 않았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김상훈 위원** 근무인력은 늘어났네요? 2013년도에 비해서 한 60명가량이 늘어났는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13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났습니다.

○**김상훈 위원** 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많이 늘어났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13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도 대기시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그 부분은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상훈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용 건수가 엄청 늘

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 수준이야, 해마다. 그런데 운전원은 더 늘었는데 대기시간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저희가 작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125만 명이 저희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38분 대기시간이었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 보면 40분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증가됐습니다. 이는 작년도에도 저희가 437대를 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똑같이 437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파트인력을 좀 늘려서 최대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110명에서 142명으로, 저희가 휴무 전담반이라고 해서 휴무 차량이 발생하면 그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125만 명이었던 게 금년도는 한 130만 명으로 이렇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처장님 말씀대로 하면 30분에서 40분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30분에서 40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민원내용을 우리 처장님이 다 한번 읽어보세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김상훈 위원** 보면 3시간, 4시간 얘기하고 있어요, 30분이 아니라.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그 부분은 전에부터도…….

○**김상훈 위원** 제가 지금 두 번째 이 얘기를 하는데요 개선점을 찾아서 장애인들한테 잘 해 줘야죠. 우리 처장님 일하시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어디 운전원이 장애인들한테 폭언을 일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벌점제를 채택해서 퇴직을 시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맞습니다.

○**김상훈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제가 엊그제, 사장님, 홍지문터널이라는 데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상훈 위원** 거기를 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 거기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전복사고…….

○**김상훈 위원** 전복사고는 아니고 천장에 뭐 그렇게 균열이 많이 가있어요? 주사기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놨던데 그게 뭐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천장에 있는 균열을 보수하는 부분인데요, 그 도로 부분은 저희 도로관리본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네, 그러시죠.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입니다.

홍지문터널은 일반터널하고 구조 자체가 좀 다릅니다. 위에 풍도가 있어서, 위에 보시면 보통 터널은 둥글게…….

○**김상훈 위원** 균열이 간 건가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네, 둥글게 돼 있는데 홍지문터널은 평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풍도라는 게 있는데 구조적으로 잔균열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 균열에 대한 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 터널사고를 보니까 홍지문터널에서만 3건 정도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다 화재 발생입니까, 3개가?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김상훈 위원** 균열이나 이런 게 떨어지거나 낙석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홍지문터널이 성산 방향 쪽으로 약 2% 정도 구배가 계속해서 지기 때문에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용자들은 인식을 잘 못하는 내리막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사고가 있고 그다음에 주로 사고가 타이어 펑크에 의한 전복사고가 많습니다.

○**김상훈 위원** 천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뭔 주사기 같은 게 수백 개가 그렇게 꽂혀있던데.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선제적 관리라고 그래서 놔둬도 되는데…….

○**김상훈 위원** 놔둬도 돼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놔두면 거기로 이산화산소라든가…….

○**김상훈 위원** 이 점이 내가 심히 우려가 돼서 오늘 한번 묻고 싶었어요. 이상 없는 것입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공원 원장님.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입니다.

○**김상훈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육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사육사들 현황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내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사육사나 이런 게 증원이나 됐다든지……. 제가 대학교에 겸임교수로 나갔었습니다. 거기 제자들도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하고 컨택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육사 한 명이 3개의 사육장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어떤 충원이라든지 보충된 게 있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지금 1명이 보충돼서 사육사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퇴직자를 예비해서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1년 먼저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상훈 위원** 그 인원이 제가 생각할 때에 아니, 제 생각보다도 우리 원장님이 생각할 때 그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사장님, 인원이 부족한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전에도 무슨 불상사가 있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보충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정당한 인원 보충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뭐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 문제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아니 그런 것 있으면 충분히 저하고도 상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때도 내가 부족한 것 있으면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리고 또 제2의 그런 사고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 인원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위험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사실 어린이대공원 자체가…….

○**김상훈 위원** 그 사육사들도 우리 이사장님의 식구들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상훈 위원**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해주시면 상의해서라도 인원을 보충을 해야지 그렇게 인원 1명이 3개의 막사를 관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부분, 김상훈 부위원장님…….

○**김상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안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공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한테 꼭 시일 내에 얘기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리고 동물원의 동물들이 폐사하는 원인들이 있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원장님, 그 폐사원인들을 보니까 원인들도 있지만 개체수가 1년에 많게는 60마리씩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10몇 마리씩 이렇게 폐사됐는데 주요 원인을 보니까 병사가 좀 많아요, 병사. 그 병사라는 것은 병으로, 지병으로 간다는 거죠? 노사가 아니죠? 노후 돼서 죽는 건 아니죠, 병사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병사는 주로 열악한 환경이나 투쟁사와 연관돼서 생기는 병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병사가 되면 다시 이 동물들을 보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 않죠?

제가 지난번에 동물병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어

서 시설개선을 했어요, 2년 정도에 걸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대공원장님이 봤을 때 지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아프거나 예를 들어서 중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동물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그것은 제가 지금…….

○**김상훈 위원** 지금도 지극히 미미하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밖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서 데리고 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대 수의학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자가치료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나 돼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1년에 외부에서 저희가 진단받거나 치료받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동물 병의 경우에도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상훈 위원** 한두 건 정도예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네.

○**김상훈 위원** 1년에?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대부분은 다 자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네.

○**김상훈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1년에 60마리씩 폐사돼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자가치료율이 없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그 뒤로는 계속 병사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신경 써 주시고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 이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알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감사님, 2017년 3월 20일 12시에 식사를 하셨어요, 직원 한 분하고. 공동구안전관리 관련해서 현장감사를 직원 외 1명 했는데 아,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 외 1명이 6,000원을 썼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에서 2인으로 했는데 6,000원이 나오나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시는 것입니까? 네?

1시 50분에는 복지경제본부장님하고 네 분이서 식사를 하셨고요, 식사인지 뭔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잘 쓰셨으리라고 믿는데 뒤에 붙이는 비고에다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시는 분이 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협약서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잖아요, 업무협약서를 왜 맺는 것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업무협약서를 왜 맺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어떤…….

○**우형찬 위원** 업무협약서를 굉장히 많이 맺으셨어요. 2016년도 그렇고 ′17년도 그렇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기관과 MOU 맺은 사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형찬 위원** 네. 목적은 이제 공단의 사업홍보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보는데 강동구청과 업무협약서를 맺은 것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성북구청요.

○**우형찬 위원** 그것은 2017년이고요, 2016년에는 업무협약서 하고 강동구청이 나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2016년요?

○**우형찬 위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형찬 위원** 이것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업무협약서로 올리셨더라고요, 실적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것은…….

○**우형찬 위원** 공유재산 사용허가서가 무슨 업무협약서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죽 훑어봤는데 2016년도에 청계아띠 관련해서 죽 업무협약을 맺어요, 우리 이사장님 계시고 KB국민카드.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실적 위주예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오셨어야 되는 건데, 구청장님 오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보니까 성동구 종합사회복지관,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구. 성동구에서 오신 분도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세요.

그리고 동명기술공단은 안전진단업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해관계가 걸린 업체도 여기에 들어오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청계아띠예요?

○**우형찬 위원** 동명기술공단. 제가 안전진단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업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일단 청계아띠 자체는…….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우리가 저기를 해서 진단을 내고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과 어떻게 업무협약을 맺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청계천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서울시에서 용역이나 기타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곳이 어떻게 업무협약서에 같이 일원으로 들어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업체 밀어주기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청계아띠 자체가 저희가 봉사를…….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청계아띠에 관련해서 여러 업체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참 많은 업체들을 하는데 선정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군데와 다 맺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동구청 한 군데하고만 맺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동구 아래에 있는 산하기관들과 다 맺어야 돼요? 그러면 서울시내 수백개 기관하고 다 맺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맺을 때 서울시설공단이 갖고 있는 가치와, 가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위상과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실적 올리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런데 청계아띠 자체가 사실 청계천에 봉사하면서 청계천에 대한 관심과…….

○**우형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계천에 공사했던 모든 업체들과 다 업무협약서를 맺으면 되겠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이 업무협약서가 그 업체로서는 하나의 실적이 된단 말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계약해서 수주를 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업체 특혜주기라고 오해를 살 수가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우형찬 위원** 해비타트는 왜 업무협약서를 맺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해비타트는 저희가 해외봉사 추진하면서 봉사추진기관으로 해비타트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해비타트를 통해서 해외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해비타트를 선정을 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해비타트와 하겠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어떻게 입찰로 나가셨어요, 용역으로 나가셨어요? 해비타트 선정을 뭘로 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 자체심의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자체심의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예산이 나가고 우리가 후원계좌가 나가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갈 텐데 그러면 입찰이나 그런 절차가 공정해야죠.

누가 해비타트를 결정했어요? 해비타트가 선정된 경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실 수 있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비타트로 하기로 한 거예요?

○**총무처장 안찬** 총무처장 안찬입니다.

○**우형찬 위원** 네.

○**총무처장 안찬** 해비타트하고는 해외자원봉사를 위해서 사전에 양 기관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형찬 위원** 자, 제가 지금 이사장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데 해외에 자원봉사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많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비타트란 곳이 선정된 이유와 과정, 누가 이 해비타트를 찍은 거예요?

○**총무처장 안찬**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우형찬 위원**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우리 서울시설공단에서 해외봉사나 기타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되면 우리가 거기에 충분한 지원 및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절차가.

○**총무처장 안찬** 그렇게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선정된 기관은 아니고요.

○**우형찬 위원** 왜요?

○**총무처장 안찬** 저희들이 해외봉사를 하는 기관 중에서…….

○**우형찬 위원** 누가 선정을 했어요?

○**총무처장 안찬** 저희 총무처에서 해비타트 기관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형찬 위원** 수많은 기관 중에 임의대로 선정하신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부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해비타트라는 곳이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알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해외봉사가 사실은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총무처에서 그 취지를 살려서 첫 번째는 저희가 돔구장 인수를 앞두고 있어서…….

○**우형찬 위원** 이사장님, 말씀을 길게 이어갈 필요 없이 짧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야구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우형찬 위원** 해비타트가 선정된 과정을 주세요, 서류.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비타트가 딱 되지는 않았을 테고 자문위원회 회의라도 거쳤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부분 아마 자체심사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자체심사도 서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내부회의록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있습니다.

○**총무처장 안찬**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것 업무협약서와 관련해서 좀 더 내용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7688부대다, 3537부대 같은 경우 군부대잖아요. 우리 통합방위협의에 따라서 업무협약 안 맺어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제가 월드컵경기장…….

○**우형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많이 하시려다 보니까 의욕이 넘쳐서 하신 것 같은데 KB 동부영업그룹과 어린이대공원 숲 복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맺었거든요. 돈 들어왔어요? 서울숲 복원을 위해서 KB 동부영업그룹에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돈 들어왔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집행부석에서) 네.

○**우형찬 위원** 얼마 들어왔습니까?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시간 얼마 없으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집행부석에서) 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요, 매월 1회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1회씩 자원봉사를 하고, 여기 보면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집행부석에서) 올해 23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정확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면 예산은 일단 서울

시설공단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들어왔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공단에는 돈이 들어왔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아니, 저희 공단이 직접 후원하지 않고요.

○**우형찬 위원** 그러면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이 들어오기로 했으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 브리온컴퍼니는 뭡니까? 여기 스포츠기획사하고도 업무협약을 맺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스포츠 마케팅회사인데요…….

○**우형찬 위원** 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스포츠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한편 함께 노력한다, 그러니까 업체와 맺은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남들이 보면 이것 완전 이 업체에 대한 특혜잖아요. 네? 스포츠기획…….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 쪽에서 얻는 편익이나…….

○**우형찬 위원** 그러면 공고를 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 회사에서 얻는 편익이나 시민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그런 자의적인 판단을 막기 위해서 입찰공고가 나가는 거잖아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업무협약서이라는 이름으로 이 회사로서는 큰 특혜를 받은 거예요. 이 업체는 서울시설공단…….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오해를 살 수 있게끔 일반시민들이 보면 충분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공동업무협약이 남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잠시만요, 다 듣고 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트리플에이커뮤니케이션은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거기는 중국 관련 마케팅 회사입니다.

○**우형찬 위원** 왜 업체와 계속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죠?

그다음에 2017년도 한번 봐볼게요. 한국임업진흥원은 우리 이강오 원장님과 같이 했죠? 왜 공단 이사장님이 빠지고 원장님하고 직접 맺습니까?

앉으세요.

세진플러스는 현수막 수거업체죠? 세진플러스에서 이 현수막을 다 수거합니까? 네?

지구촌나눔운동 사회봉사한다고 하잖아요. 돈이 꽤 나갔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왜 여기를 선정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구촌…….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원협약서가 있는데 4,843만 원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까 총무처에서 그것은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지출했는지가 밝혀져야 되거든요. 이사장님의 의지나 누구 특정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광진구청도 그렇고요, 화양초등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초등학교와 업무협약서는 왜 맺으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어린이대공원에…….

○**우형찬 위원** 그러면 제가 졸업한 모교, 이사장님이 졸업한 모교하고도 다 업무협약을 맺어야 되겠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물론 그 해당업체는 실적을 얻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얻는 편익이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형찬 위원** 그 편익의 판단이 너무 자의적이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런데 오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서에 대한 매뉴얼이

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공단에 합류한 지 4년여 됐는데 사실 과거에는 외부와 협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화와 혁신을 한다는 차원에서 외부자원, 저희가 제한된 예산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제가 이해는 가요. 리옹동물원, 한국임업진흥원, KBO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세진플러스, 지구촌나눔운동은 우리가 후원해 주면서 무슨 업무협약까지 맺으면서, 광진구청, 참 이해가 안 가는 곳하고 많이 맺습니다. 국민대학교도 저희가 국민대학교와 맺었으면 모르는데 국민대학교 무슨 학부하고도 맺죠? 학부별로 맺죠?

저는 업무협약 과정에서 밀어주기 특혜주기로 충분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제공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이번에 행감 마치고는 업무협약 전체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미 맺은 업무협약은 어쩔 수 없어도 향후 이해관계자나 그다음에 격이 맞지 않는, 그다음에 목적이 불분명한 이런 업무협약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 서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진**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고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작년에 5% 약속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는데 현재 9월 기준으로 4.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준환 위원** 2014년에 3.48%에서 계속적으로 증가돼서 지금 4.34% 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인데요.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쪽 분야가 위탁관리 하는 대행하는 업무가 한 15개 큰 기관이 있잖아요. 그 업무 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경증 장애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황준환 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5% 채용하기가 쉽지 않더라도 관리공단에서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지금 공무직 직원들에 한해서는 지난해까지 장애인 가점을 주다가 올해부터 일반직까지도 전 직종에 장애인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직 직원 채용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채용이 끝나고 나면 장애인 고용수가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직원이 또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모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5%까지 늘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준환 위원** 장애인 가점 5점 주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황준환 위원** 5점 주는 게 자체 채용내규만 조정해서 가능했던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게 했습니다.

○**황준환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공무직에만 적용했는데 다른 직종도 전부 다 확대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황준환 위원** 그것은 아주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직종에 그전에는 장애인 고용을 안 했었죠? 이번에 처음 하신 거죠, 38명?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황준환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담하고 이러는 것은 장애인들이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이렇게 응대하는 서비스 만족도도 커지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상담원은 장애인을 고용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황준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것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찾으면 효율적으로 업무에 큰 지장도 없으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억지로 뭐 채용해서 맞추라는 게 아니라 요소, 적재적소에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그렇잖아요? 서양 속담에 물고기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장애인 복지 최고는 고용이에요. 직업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상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상인 못지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줬을 때 얼마나 그게 좋은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의무고용비율 관리공단에서는 꼭 좀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민원도 많이 줄어지고 이렇게 좋아졌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대기시간은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 위원** 알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황준환 위원** 대기시간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생각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내년에 비휠체어 택시를 증차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상에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늘 이 대기시간 때문에 시민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준환 위원** 다른 부분은, 지금 불만사항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 개선이 많이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과거에 비해서는 좀…….

○**황준환 위원**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시간인데 요즘 같은 날씨에 쌀쌀한데 한 5분 더 기다린다 하는 게 40분 이상 기다린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개선할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계천에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많이 개선이 됐어요. 보니까 보행시설 보완을 한다든가 보행 보조시설 핸드레일을 거의 설치를 안 했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황준환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경사로나 계단에 많이 설치를 했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30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황준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그럼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핸드레일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황준환 위원** 그거 아주 잘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설치된 데가 또 25군데 되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직 있습니다.

○**황준환 위원** 이것도 경중을 따져서 핸드레일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꼭 장애인뿐이 아니라 노약자나 이런 분들도 핸드레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출입로 올해 두 군데가 확대됐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랬습니다.

○**황준환 위원** 그런데 이제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주변 개방화장실을 이용토록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

○**황준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것을 늘려라 이렇게 획일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한

번 이렇게, 뭐랄까 용역이랄까 약간 조사를 시켜서 어느 구간에, 꼭 필요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전수조사 결과에서 현재 상태로도 늘리지 않아도 충분하다 하면 굳이 안 늘려도 돼요. 그런데 어떤 데는 돼 있는데 어떤 데는 진짜 불편하다 하면 그런 데는 이쪽 직원들이 하기 전에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그것을 전수조사를 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이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 괜찮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황준환 위원 그렇게 꼭 좀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황준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추가로 하면요, 공기질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지하상가 공기질이 기준에 아주 상회하는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법적기준에는 기준치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일시적으로 굉장히 기준치가 상승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황준환 위원 제가 자료 파악한 거로는 강남터미널 3구역, 남대문, 명동, 종로4가 지하상가는 4년 연속 기준치 초과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아마 저희 모니터링 자료일 텐데요. 저희가 사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해서 상승할 경우에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전체 데이터를 보면 환기가 잘 안 되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미세먼지라든지 대기환경이 안 좋을 때는 이산화질소가 많이 입수돼서 좀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상승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황준환 위원 특히 권고기준 대비 초과일수가 가장 높았던 지하상가는 남대문이 109일, 회현이 89일, 종로4가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어쨌든 지하상가는 공기질이 우리 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특히 공기질이 안 좋은 데는 우리 시민들이 진짜 이용을 많이 하는 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북적하게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데예요. 그러면 그 시민들이 건강이 안 좋아……. 거기에서 물론 사업을 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더 안 좋겠지만 그 안 좋은 데가 유동인구가 많은 데예요. 그만큼 시민들의 피해가 더 높은 데란 말이에요. 그 점을 유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책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공기질 개선에 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또 개선방향이 있으면 바로바로 적용해서 공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다는 것은 그 개선의 의지를,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습니다.

○황준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심도 있게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지금 용역을 중간보고 내지는 중간에 자료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지하상가에 유동인구가 많은데 먼지구더기에 들어가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성중기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해외여행 대행업체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대행업체 선정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만 갔다 오셨는데 주차시설운영처 1급 전……. 이름이 가려져 있으니까, 대만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전기성 주차시설처 전기성입니다.

○**우형찬 위원** 직원들 데리고 혼자 다녀오셨어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전기성** 인솔자로.
○**우형찬 위원** 여행사에서는 아무도 안 오고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전기성** 여행사 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어디서 왔습니까?
○**주차시설운영처장 전기성** 여행사는 제가 뭐 특정 업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억이 안 나고, 가이드 통해서…….
○**우형찬 위원** 아시는 분이에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전기성** 모르는 분입니다.
○**우형찬 위원**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전기성**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우형찬 위원** 누가 했어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전기성** 인재개발원에서 선정돼서 제가 인솔책임자로 다녀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인재개발원은 자료가 없대요.
인재개발원……. 나오지 마세요. 자료도 안 주시는 분이 뭘 나와요.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들어가세요.
다음, 호주 갔다 오신 분 여기 계세요? 2017년 9월 3일부터 9월 12일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감사실 여기 계시죠? 감사실에서 세 분 갔다 오셨네? 감사실 누가 갔다 오셨어요?
그냥 서서 말씀하세요.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집행부석에서) 직원 3명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본인 실장님도 가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집행부석에서) 저는 안 갔습니다.
○**우형찬 위원** 안 가셨고요. 이 세 분만 갔어요?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집행부석에서) 네, 3명이 갔습니다.
○**우형찬 위원** 여행업체는 선정 안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집행부석에서) 여행업체 선정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어디요?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집행부석에서) 제가 이름은 기억이…….
○**우형찬 위원** 어디서 여행업체 추천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집행부석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집행부석에서)**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받았는지 지금 당장 빨리 요구해서 받을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집행부석에서) 네.
○**우형찬 위원** 지금 전화해서 받아오세요.
그다음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갔다 오신 분? 공사감독2처…….
추모시설운영처장님.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집행부석에서)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우형찬 위원** 거기 3명 갔다 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가신 거예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집행부석에서) 저희 추모시설팀만 간 게 아니고 기획연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여행사 어떻게 해서 가셨어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인재개발원에서 해서 저희는 인원만 3명이 포함되어서 갔다 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사장님, 자료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네? 저 3개만 찍어봐도 인재개발원에서 했다고 나오잖아요.
의도적인 것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뭐 숨기는 것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왜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줘요?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우형찬 위원** 3,000만 원 이상인 것 다 받았어요. 그다음에 온 게 대행업체 관련해서 대행업체를 따로 계약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 두 군데만 해도 벌써 나오잖아요, 인재개발원에서 해서 왔다고. 숨겨야 될 게 뭐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안 주셨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우형찬 위원** 이것 보셨어요, 이것?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 자료요구 하니까 참고자료가 이렇게 딱 왔어요.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 하려고 행감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전혀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 다 전화확인 하면 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무튼 저희가 가능한 빨리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뭡니까, 인재개발원장님은?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한 군데만 딱딱 전화해서 하면 어디 업체에서 했고, 어레인지는 누가 했고 딱 나올 것 아닙니까?

비교견적을 받았다고요, 아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그것 받은 것 혹시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그 자료를 가지고는 계세요, 비교견적 받은 것을? 대개는 버리니까.

(「자료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그것 한번 줘 보실래요?

행감을 하는 거지 행감자료 요구하느라 이렇게 실랑이를 벌여서 되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이러면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지는 않고요.

○**우형찬 위원** 법상 우리가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고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3,000만 원인 것은 알지만 그 이하 사용내역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와 의무는 있어요. 그것하려고 행감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행감 준비를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해비타트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해외봉사단 파견하는 데? 예산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제가 지난해에는 4,8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비타트는 정확하게 금액을…….

○**우형찬 위원** 보니까 2016년도 해외봉사대 파견을 인도네시아로 했습니다. 예산 들여서 갔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까도 똑같이 제가 질문드렸는데 지구촌나눔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누가 선정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총무처에서…….

○**우형찬 위원** 공고 나갔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공고는 안 나갔고요.

○**우형찬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공고는 안 나갔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공고가 안 나간 이유는 뭐예요? 이사장님 방침입니까? 결정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누가 이 업체를 딱 선정을 한 것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사실은 저희가 이것이 4,8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해도 대부분이 저희 20명 직원들의 여비와 체재비와 구호물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관의…….

○**우형찬 위원** 여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것과 맞물리잖아요. 이것과 같이 가야죠, 어차피 입찰 나가야죠.

그러면 이 여행경비는 누가 끊었습니까? 지구촌나눔운동에서 비행기표하고 이런 것을 끊었습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끊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해비타트에서 하고 저희가 일괄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구촌나눔운동인데 왜 해비타트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구촌나눔운동도요.

○**우형찬 위원** 거기에서 다 여행사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왜냐하면…….

○**우형찬 위원** 일단 돈은 그쪽으로 갔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국제기구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돈은 갔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돈은 그쪽으로 갔고요.

○**우형찬 위원** 갈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그 내역이나 이런 것은 받았죠.

○**우형찬 위원** 내역이나 그게 아니라 이 업체한테 4,800만 원의 돈이 가게 됐을 때에는 입찰을 하든지 경쟁을 하든지 이사장님의 방침이든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이것이 3회 차 정도 되어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형찬 위원** 이사장님, 이것은 특혜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런 절차가…….

○**우형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내고 다시는 재발생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행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선정절차나 이런 게 제대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없으면 이것은 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사실 해외봉사…….

○**우형찬 위원** 이것 누가 한 거예요? 이것 누가 한 것입니까, 지구촌나눔운동에 4,300만 원 간 게?

(「총무처」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나오세요.

○**총무처장 안찬** 총무처장 안찬입니다.

○**우형찬 위원** 지구촌나눔운동을 어떻게 선정하게 된 것입니까? 입찰했어요?

○**총무처장 안찬**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추진은 안 했다 그것은 아까와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구촌나눔운동이라는 단체한테 4,300만 원을 줘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자라고 결정한 것은 누구예요?

○**총무처장 안찬** 그것은 저희 주관부서에서…….

○**우형찬 위원**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총무처장 안찬** 총무처입니다.

○**우형찬 위원** 총무처장님이시잖아요.

○**총무처장 안찬** 네.

○**우형찬 위원** 지구촌나눔운동을 결정하셨어요?

○**총무처장 안찬** 네, 방침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누가 여기 지구촌나눔운동이라고 찍었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결국 결정은 제가 했고요.

○**우형찬 위원** 지구촌나눔운동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총무처에서 여러 기관을 검토해서…….

○**우형찬 위원** 제안을 하셨으면 어떻게 왜 지구촌나눔운동을 결정해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총무처장 안찬** 저희들이 봉사성격상 해외봉사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그것을 왜 1개 업체만……. 그러면 여러 군데 업체의 제안서를 받았어요?

○**총무처장 안찬** 공개적으로 제안서는 받지 않고 저희들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우형찬 위원** 사전조사 몇 개 했어요?

○**총무처장 안찬** 해비타트와 할 때는…….

○**우형찬 위원** 해비타트는 여기 있고.

○**총무처장 안찬** ′17년 지구촌나눔운동 할 때는 복수의 기관과 섭외는 하지 않고요…….

○**우형찬 위원** 그러면 왜 여기만 했어요?

○**총무처장 안찬**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형찬 위원**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나갈 때에는 법적인 근거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처장 안찬** 지금 형식은 주관기관과 사전에 업무협약을…….

○**우형찬 위원** 아니, 저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지구촌나눔운동은 저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무처장 안찬** 후원협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에 4,300만 원을……. 그 4,300은 후원, 사비를 모아서 간 거예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자금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

요?

○**총무처장 안찬** 공단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넘어갈 때 정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죠.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총무처장 안찬** 국제구호단체의 후원협약을…….

○**우형찬 위원** 국제구호단체가 한두 군데예요? 국제구호단체를 선정하려면 선정기준이 있고 회의를 거치고 이 선정이 맞는지 합의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 이후 평가, 그런 과정이 다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요.

○**우형찬 위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저는 밝혀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사실 처음으로 해외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그것이 2015년으로 기억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그것이, 사실 공단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이사장님, 서울시예산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이 여기로 나간 거예요. 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의회가 있고요, 절차와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절차와 규정 없이 금액이 다 나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감사님,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앞으로가 아니에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징계 받을 것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 정권수** 받을 사항이 있으면…….

○**우형찬 위원** 받을 사항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처장님 독단으로 3,000만 원이 어디 갔어요. 용서됩니까? 안 되잖아요.

○**총무처장 안찬** 위원님, 지출근거는 저희들이 파견계획 방침을 받으면서 그 기관과 후원협약을…….

○**우형찬 위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세요? 공정한 절차와 경쟁, 입찰 그 과정을 거쳤냐는 거예요.

○**총무처장 안찬** 그 과정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감사 정권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해외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공단이 경험이 적었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형찬 위원**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지구촌나눔운동한테 특혜주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거든요.

○**감사 정권수** 그 절차에 있어서…….

○**우형찬 위원** 지금 해비타트는 없잖아요, 분명히 여기는 해외봉사대가 파견이 갔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MOU에 아까는 없었거든요.

○**총무처장 안찬** 같은 형식으로 됐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해외봉사대는 다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여기는 얼마예요?

○**총무처장 안찬** 그쪽도 포괄예산으로 저희들 교육훈련비에 5,000만 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형찬 위원** 여기도 입찰 나갔어요?

○**총무처장 안찬**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여기 입찰 나갔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입찰 안 나갔습니다.

○**우형찬 위원** 해비타트한테는 일단 5,000만 원 준 거죠?

○**총무처장 안찬** 아닙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형찬 위원** 그럼 준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해비타트에 예산이 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여비와 체재비입니다.

○**우형찬 위원** 아무튼 갔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어떠한 경쟁이나 절차과정 없이 갔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경쟁이나 절차가 없이 진행돼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형찬 위원** 개선이 아니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짧게, 거기 계속 계셔보세요.

경영개선자문위원 누가 선정했습니까?

○**총무처장 안찬** 기획실 소관인데요.

○**우형찬 위원** 기획실장님, 앞으로 오세요. 짧게 이것만 하고…….

경영혁신자문회의 몇 번 열었어요, 2016년 10월부터?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 16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한 10여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자문위원이 누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김홍진 자문위원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 외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그 회의에요?

○**우형찬 위원** 네, 김홍진 자문위원 외에 누가 또 다른 자문위원이 참여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아니, 혼자 자문활동을……

○**우형찬 위원** 왜요?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경영 전반에 대해서 자문활동을 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 완전 이사예요. 이분 혼자 다 들어와요. 10여 차례 경영자문위원회 회의에.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바쁜 분들이 10여 차례 회의에 이분 한 분 모시고 회의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저희가 다른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데도 자문위원을 모십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는 이분 외에 다른 분 있어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한 분만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 한 분만 해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한 분한테 무슨 의견을 듣고 개진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분 차라리 이사로 넣어요. 이렇게 한 분, 제가 이분의 능력은 모르지만 이 한 분만 경영개선자문위원으로 계속 참여를 해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분 이력 경력 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뭐 하러 두세요, 이분 혼자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사장 취임하고 경영개선계획 수립 중에 김홍진 자문위원한테 일부 자문을 얻었고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안에 대한 토론과…….

○**우형찬 위원** 그 현안에 대한 토론을 이 한 분하고 이렇게 많은 회의를 계속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국가 공기업에서 경영혁신을 했던 경험과…….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자질을 갖고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충분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충분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매번 이분이랑 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왜냐하면 저희가 목표로 했던 여러 가지 경영개선 계획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우형찬 위원** 10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6월, 7월, 9월. 아예 이사님으로 모시는 게 낫겠네요, 한 분이 이렇게까지 다 해버리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한 번 오실 때마다 자문비 15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우형찬 위원** 아니,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한 분이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에 관련된 일을 전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럼 자문위원으로 다른 분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혼자만 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왜냐하면…….

○**우형찬 위원** 경영개선자문위원의 조건은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왜냐하면 제가…….

○**우형찬 위원** 아니, 잠깐, 있어요?

○**감사 정권수**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그 한 분만 모신…….

○**우형찬 위원** 그냥 이사장님 임의대로 선정해서 이분 한 분하고만 계속 경영개선을 하는 거예요?

○**감사 정권수** 아니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위촉한 것은 작년에 1년 동안 위촉기간을 했어요.

○**우형찬 위원** 몇 분 위촉하셨어요?

○**감사 정권수** 한 분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한 분을 경영개선위원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 한 분과 계속 매달 회의를 하고요?

○**감사 정권수** 네.

○**우형찬 위원** 이게 무슨 경영개선자문회의입니까? 최소한의 경영개선자문위원 회의단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한 거지 이 한 분으로부터 의견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까? 경영개선자문위원 회의잖아요, 자문위원.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의사를 듣고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공단을 끌고 가야되는 게 이사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경영개선계획 수립 당시에는 저희 기조실과 관련 TF를 구성해서 사실 직원들 중심으로 경영개선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시각에서 검증을 받기 위해서 김홍진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았고요.

○**우형찬 위원** 그게 한 분만이라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리고 같이 설정된 자료를 점검하는…….

○**우형찬 위원** 그 한 분이 지금 거의 매달 하잖아요. 이분의 잘못이 아니라 이사장님이 보다 넓은 자문위원 그룹을 만들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부분은…….

○**우형찬 위원** 충분히 의견을 들어야 될 건데 이분 한 분만 일방적인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단 전체를 보면 다양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혁신자문은…….

○**우형찬 위원** 앞으로도 이 한 분만 갖고 계속…….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런데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부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계획대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우형찬 위원** 한 분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한 분을 위한 경영개선자문회의란 제도가 있고 이 한 분이 매번 회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공단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

○**우형찬 위원** 그게 딱 한 분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 딱 한 분이어서가 아니라요…….

○**우형찬 위원** 일단은 경영개선자문위원 그분 이력 경력을 한번 주시고요.

○**감사 정권수**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무튼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당연히 개선해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 서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진**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제가 고척돔구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최판술 위원** 2015년 10월에 넥센 히어로즈와 서울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최판술 위원** 계약은 ′16년, ′17년 2년 계약을 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 위원** 그러면 새롭게 내년부터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를 찾아야 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 위원** 지금 해당 구단이 1년에 사용료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1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 위원**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4회 분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 위원** 4회, 그럼 약속된 기한 내에 잘 들어

오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최근 깜짝 놀랄만한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구단주 관련 뉴스 보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최판술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최근에 횡령과 여러 가지 소송 건으로…….

○**최판술 위원** 그래서 구단주와 부사장이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았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 위원** 이런 상황에서 구단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서울시와 공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일단 올해 2월에 여러 가지 그런 소송 진행으로 인해 이장석 대표이사에서 최창복 대표이사로 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최판술 위원** 언제 바뀌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올해 2월이요.

○**최판술 위원** 금년 2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금년 2월이요.

○**최판술 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는 그렇게 안 줬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리고 일단 새로운 대표가 선임돼서 지금 구단을 진행 중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게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금 현재 최창복 신임 이사장이 위임해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의 업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판술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판술 위원** 금년 말까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협약서 제4조를 보면 돔구장운영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최판술 위원** 이곳은 뭐하는 곳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돔구장 운영에 관해서 서울시, 공단, 또 구단 이렇게 구성해서…….

○**최판술 위원** 서울시, 구단 그리고 우리 공단도 들어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공단도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최판술 위원** 이 협약서 내용이 통상적인 사용ㆍ수익허가 계약과는 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최판술 위원** 협약.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최판술 위원** 잘못된 것이 저는 좀 인지가 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협약의 어떤 부분……

○**최판술 위원** 협약서, 그러니까 구단과 서울시가 협약한 것이 있잖아요. 2년 협약한 것 있잖아요. 그 협약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고척돔 설립 후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가 없어서 그 넥센에 좀 유리하게 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판술 위원** 공유재산법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일반 입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보면 어느 한 곳도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사장님은 어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고척스카이돔 운영에 관한 협약내용, 서울시와 히어로즈 간의 협약은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적용을 받은 것으로…….

○**최판술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20조 2항인데요,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몇 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러니까 공물법상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특별한 규정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해당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최판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행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물법이 아니라, 공물법 시행령을 얘

기하는 것이거든요. 시행령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시행령에는 어느 한 곳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구단과의 계약서를 보면 제3조 홈구장 사용 및 사용기간에 단서로 계약기간 종료 이후 상호 협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공유재산법 가능한 조항이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이것도 저희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준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하면 25년 이내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 위원 이거 누가 한 것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이 협약 자체는…….

○최판술 위원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도 관여는 했지만 협약 자체는 서울시와 히어로즈가 진행했습니다.

○최판술 위원 이후에 재계약하실 때요 이런 불합리한 계약 조항은 법령에 따라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 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공단도 이제 12월이면 돔구장 위ㆍ수탁 계약이 종료가 되죠, 서울시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최판술 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3년을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 위원 그런데 유난히도 돔구장만큼은 1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서울시와 공단 간에 돔구장 위ㆍ수탁협약은 사실상 2년 3개월로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2015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 혁신계획에 따라서 저희 사업의 체제가 민간위탁에서 대행협약으로 바뀌면서 대행협약 기간만 올해 1월부터 1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최판술 위원 그러면 이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은 3년 계약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판술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위탁 운영을 위해서는 1년 가지고 안 되고 최소한 2~3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최판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시에 알려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판술 위원 제가 좀 더 할까요, 아니면 보충질의 할까요?

○위원장 서영진 좀 더 하시죠.

○최판술 위원 네.

또 역시 고척스카이돔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행정재산을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공유재산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하판매시설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 위원 그렇습니다.

1년 전에 민원이 있었죠? 이 민원내용이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하판매시설에 공단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입점업체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최판술 위원 그 내용이 수입금 정산이 안 된다.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수입금이 정산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전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이분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그 뒤에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사항이죠.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최판술 위원 그래서 1년 이따가 컬쳐리퍼블릭인

가 거기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최판술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재위탁을 받은 12개 점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사실 컬쳐리퍼블릭과 계약상에 공단의 허가를 통해 입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12개 점포에 관해서는 미승인 점포인 관계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최판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쫓겨나야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현재 10개 업체는 명도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최판술 위원**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를 잘못했다라고 저는 봐져요. 1년 전에 이런 민원들만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운영계획을 세우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판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컬쳐리퍼블릭 이분들로 하여금 많은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 일구어 놓은 재산을 날리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도 그 12개 업체를 회수해 보려고 계속 컬쳐리퍼블릭이나 자료를 요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서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최판술 위원** 결론은 이분들이 가게를 비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이미…….

○**최판술 위원**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영업장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잠실운동장 장사했던 분들, 이분들이 쫓겨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보면서 이분들도 거기에 그런 어떤 피해를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ㆍ수탁 하는,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이런 현장들이 많을 텐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인지만 잘하고 대처만 잘했다면 이분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러겠습니다.

○**최판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 여러 가지 하는 업무 중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모시설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자에 대한 존엄 강도가 아마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말 관련한 180여 명의 직원들이 그러한 국민적 정서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신속하고 친절하게 이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인의 유족들이 정말 머무는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위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선진장례문화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5일에 토론회가 있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 서울시가 주최하고 시설관리공단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함께 주관을 해서 선진장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례문화 시민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어떤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일단 지금 현재 화장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자연장 조성이라든지 또는 친환경 화장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시민들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기준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2016년 기준에 화장률이 82.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이면 90%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장문화는 어느 정도 거의 소멸됐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는가, 아직도 한 10% 이상이 매장을 하

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로 전환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8년 5월부터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제리 위원 자연장의 형태를 보니까 수목형이 있고 화초형이 있고 잔디형이 있고 수목장림형이 있어요. 수목장림형이 여기 업무보고자료 13쪽에 있는 다목적 자연장과 같은 것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같은 것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말고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수목과 다양하게 정원을 조성해서 하고 있는 것을 다목적 자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생활공간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원에도 개인장지나 가족장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직은……. 아무튼 지금 자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워낙 크고, 그리고 개별추모에서 집단추모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수목장림이 등장함으로 해서 이것이 관련법이 있겠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서 조성하는데 사실 집 앞마당에도 조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김제리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이사장님. 이것이 법적으로 전용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개인이나 가족장 조성이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 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거기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 그러냐면 산림조합에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서 2030년까지 수목장림을 100개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제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함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각 광역지자체에 1개씩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 조성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요.

○김제리 위원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설공단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울시 같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러한 선진 장묘문화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계획적으로 나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30, 30, 40개 이렇게 만들 계획이고요, 이 조성하는 데 대해서 융자가 8억 정도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차후에 4차 산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현재의 정부정책과 함께 잘 맞춰가면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장례문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실상 공간이 부족해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처리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좀 더 많은 다목적 자연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도지역에 많은 이러한 장례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서울시 도심에서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계획을 보고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른 광역지자체보다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만 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향후 장례문화를 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

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급속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독거노인도 많지만 나홀로 가족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다음은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교통본부 때 본 위원이 장애인콜택시 증차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단에서는 증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획기적인 증차는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을 증원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용수요를 저희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저희가 비휠체어 장애인 개인택시를 확대하고자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장애인콜택시는 법정대수 8대 정도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나름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아직 수년째 증차가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교통본부에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깊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특장차량 대비해서 연간 1,293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차가 꼭 필요하다,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의논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일찍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지난 8월 30일 러시아 월드컵 이란과 최종 경기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 해도 8월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지형 잔디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스포츠용 잔디로는 매우 우수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 특성에 맞지가 않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리나라…….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여름철에 하고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큰 단점입니다. 하고현상이 뭔지는 우리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제리 위원** 어쨌든 그러한 관계 때문에 이 잔디를 전면으로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만만치는 않겠습니다만 잔디 종류가 난지형 잔디가 있고 한지형 잔디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장마 이후에 생육이 부족하다든가 또한 황갈색으로 변하는 이런 하고현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데는 환경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우리나라 기후가 겨울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또 난지형 잔디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공단에 합류했을 때 그 당시부터도 월드컵경기장이 한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지금 모래층에 담압이 생겼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은 15년을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이라든지 또 우천이 특히 올해 42일간이나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에 종합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정확하게 잔디 품종의 문제인지 또 토양의 문제인지,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인지, 뿌리인지 수분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토양갱신작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잔디 전면교체를 6월 14일부터 7월 15일 그 기간 안에, 월드컵기간 안에 저희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이게 9월 하순만 되면 이 캔터키블루그래스라는 잔디가 자연스럽게 생육이 잘 돼서 손을 안 대도 아주 좋은 상태가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나 우리나라는 축구경기가 주로 여름철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유럽하고는 다르거든요, 유럽은 우리하고 시즌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것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해도 여름철에 할 때는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쩔 수 없이 축구공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잔디가 날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스파이크에 파여서. 그러한 환경적인 어려움, 특히 우리 월드컵경기장이 햇볕이 많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잔디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일반 묘지도 그늘지면 잔디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나무 수목을 제거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효창공원에 있는 삼의사 묘가 정말 울창한 숲속에 묘지 세 구가,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백정기 의사 묘지가 있고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항상 와서 하는 민원내용이 나무를 잘라 달라, 그늘져서 잔디가 안 자란다. 그래서 십수 년 전에 용산구에서 정말 그 좋은 나무들 다 베어내고 백범 묘소도 마찬가지고 임시정부 묘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잔디에 대한 민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잔디가 잘 자라려면 기본적으로 통풍이 잘 돼야 되고 햇볕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월드컵경기장은 구조나 형태 상태가 햇볕을 많이 받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서 잔디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제가 베를린경기장에 갔을 때 보니까 리모델링하면서 통풍이 되도록 한쪽 벽을 다 허물었더라고요. 저희 경기장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가 막혀있는 구조고 또 지하로 좀 들어가 있는 구조여서 통풍이랑 채광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이번에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리 아름다운 수목이더라도 묘지의 잔디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한 것처럼 모양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잔디가 좋지 않으면 항상 우리 축구 팬들에게 잔디에 관해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는 하절기에 축구경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잔디구장에서 우리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것도 관리해 내는 게 우리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저희가 종합정밀진단 나오면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위탁한 공영주차장을 시설공단이 직영하지 않고 제3자 위탁을 하는 경우가 2017년 들어와서 급격히 늘어났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민간위탁.

○**장우윤 위원** 2016년에 제3자 위탁을 한 16개소 정도 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93개소에 4,619획을 제3자 위탁을 시켰는데 이렇게 제3자 위탁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 공단관리 일원화가 2016년 11월에 계획이 수립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위탁 주차장 93개소를 외부에 주고 있습니다.

○**장우윤 위원** 아니, 그렇게 일원화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직영이 아니라 다시 제3자 위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일단 시설이 있거나 좀 규모가 큰 주차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그 외에 민간이 운영하기에 적절한 그런 곳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 위원** 민간이 운영하기에 적절하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어떤 환승주차장이나 이런 대규모 시설이 없고 그다음에 민간이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주차장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직접 주던 것을 너무 관리가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공단을 통해 위탁을 주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준 게 아니고요.

○**장우윤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직영하는 숫자는 줄었어요, 2016년보다. 그러니까 직영하던 것도 제3자 위탁으로 다시 넘긴 것들이 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3개소 주차장이 어떤 이유에서 선정됐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이 부분은 저희 주차시설 담당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우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나 어떻게 보면 이 민간위탁으로, 그러니까 공단이 직영하지 않고 93개소나 되는 것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릴 때에는 정책적 판단이거든요. 그 판단에 있어서는 이사장님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직영을 하지 않고 이 많은 부분을 갑자기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받은 부분들, 그리고 또 기존에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제3자 위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에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마 운영의 효율에 관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공단이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충분히 서울시와 함께 검토가 되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어쨌든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장우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검토한 내용 있잖아요, 93개소를 왜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해야 되는지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좀…….

○**장우윤 위원** 그러니까 기준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넘겨야 하는지, 그 수익성이라는 것에 어떤 부분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직영보다는 제3자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뭐냐니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무래도 저희 인력을 운영해서 직접 관리할 때는 저희의 관리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가 아주 까다롭지 않고 또 민간에서도 적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으로 더 좋다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주차장 관리비용은 더 늘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력도 줄고 공단 직영하는 숫자도 줄고 구획면도 줄고, 그리고 많은 제3자 위탁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그 수치는 더 올랐습니다. 그것은 이제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장우윤 위원** 네.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저희들 공영주차장 관리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84년도에 맨 처음에 주차장을 인수 관리할 때는 직영으로 해 오다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90년도 중반 이후에 민간위탁이라 해서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던 것을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시설 대규모, 좀 특수한 이런 부분만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관리권을 회수를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1일부로 시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단에서 관리할 대상 주차장은 환승주차장이라든지 대규모 시설 주차장, 그다음에 민간에 위탁할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입이 보장되는 그런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했고요. 나머지 20개소는 소상공,

그러니까 상인들 보호,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 보호 측면에서 상인들한테, 또 거주지 주차 관련해서 자치구한테 준 제3자 위탁 20개소, 그래서 총 93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장우윤 위원** 제가 민간위탁 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니까 수익성이나 이용률 높은 지역도 있고 구획수가 상당히 많은 곳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줬어요.

한 예를 들면 1급지에 570면 되는 주차장의 경우도 제3자 위탁을 줬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누겠지만 저는 지금 죽 얘기하신 부분들이 약간 설득력이 직영이 아니라 왜 제3자 위탁을 자꾸만 주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아직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이것을 고려할 때는 수익성 부분, 또 저희 인력운영에 대한 효율성 부분, 그다음에…….

○**장우윤 위원** 왜냐하면 공단은 수익만을 따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 위원** 그래서 이게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보다 주차 수익만을 우선하면 공영주차장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다가 주는 것들을 보면 개인에게 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입찰을 받아서 한 것이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 위원** 이렇게 보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공영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지도점검 시에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안전시설물 보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미비가 되고 또 근무자의 불친절이나 영수증 주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더 깊이는 안 들어가 봤지만 공영주차장 신청을 할 때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입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 신청할 때 거기 주소나 이름이나 기본적인 연락처나 이런 데 그 개인정보들이 다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저희들이 정기권 판매할 때는 전화번호라든지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돼서 적절한 선에서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올해 들어와서 기존에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14개소나 줄이고 많은 부분이 다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서 도대체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직영을 안 하고 대부분 또 제3자 위탁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까, 자료를 보다가 의문점이 나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할 때 수익성이라든지 공공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될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저희 공단에다 할 때는 민간위탁 전제조건으로, 공단에서는 그 당시 최초에는 50개소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아까 제가 보고 올린 그런 기준하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재위탁을 해라 이렇게 통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까 보고 올린 여러 가지…….

○**장우윤 위원** 서울시에서 93개소를 다 민간위탁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그 당시의 대상이 공단직영 대상, 그다음에 민간위탁 대상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민간위탁 대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선정한 그런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올린 대로 이것은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정기준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지만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올린 그런 내용이 민간위탁 관리대상…….

○**장우윤 위원** 말씀하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실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 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제3자 위탁을 요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위원님, 저희가 민간위탁 주차장을 관리하게 된 것이 1년 정도 됐거든요. 사실 몇 가지, 그러니까 최근에도 저희가 계속 협약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불친절 민원이라든지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데보다는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서울시와 좀 더 협의를 해서 민간주차장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우윤 위원** 민간위탁 주차장 같은 것 지도점검이나 관리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저희들 시설관리요원 중에서 패트롤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장 정기적으로 분기 1회 하고 그다음에 패트롤정비반 이용실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주로 지적되는 부분이 근무자 불친절이라든지 영수증 미발급, 주차구획선 탈선, 탈세, 그다음에 시설관리 부분에 부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지적이 되면 즉시…….

○**장우윤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네.

○**장우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자 위탁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개소, 구획 수, 근무인력, 또 직영에서 하는 것은 감소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더 투입되는지, 17억이나 더 증가했어요.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2015년, ′16년을 비교하다 보면 저희들이 수익금은 약간 상승했는데 지출비용이 많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익성이 없는 그런 주차장을 저희들이 직영하다 보니까 그런 수지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장우윤 위원** 아니, 전년도 대비해서 17억이나 더 투입이 됐다고요, 직영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그것은 저희들이 6월 30일자로 훈련원 공영주차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장우윤 위원** 네?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을지4가에 위치한 훈련원 공영주차장 인수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이번에 인수받다 보니까 거기 인력문제라든지 시설비용, 보수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우윤 위원** 그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 위원** 더 질의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음에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 서영진**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시죠.

○**장우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중랑구 김태수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지금 입장료 안 받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저희 애들을 데리고 어린이대공원 표를 끊어서 구경하던 시절이 있었고, 또 그 뒤에 잔디구장 축구시합 하러 갈 때 돈 내고 줄서서 공 차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참 좋은 시절이구나, 세상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대공원 내 행사사용료 면제권과 청계천 유지관리비용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대공원에서 행사를 하려면 공문이 오죠, 대관해 달라 이런 것.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최종결재는 누가 합니까? 전결이 어디까지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어린이대공원 원장이 대부분 전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어린이대공원 원장 이강오입니다.

○**김태수 위원** 원장님, 공단에 언제 오셨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이제 2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대공원의 문화행사, 일반행사 사용허가 내용을 이렇게 보면 2012년도 것부터 제가 받아서 봤는데 2015년도 이후에 보면 관에서 신청한 것은 거의 무료로 하더라고요. 서울시, 광진구 이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선화예술학교 이런 부분은 거의 무료로 해 주는데 무료로 해 주는 근거가 있나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저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내용이 뭐예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인데요 별표에서 공원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무작정?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그것은 공공기관이나 저희 공원과 관련된 행사를 했을 경우에 무료로 할 수 있다고…….

○**김태수 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그 판단은 원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제가 2015년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서울시 문화정책과,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그다음에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세종대 우주천문학과, 광진구 문화체육과,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이렇게 7건 정도가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한 번은 광진구 문화체육과, 한 번은 돈 받고 한 번은 안 받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한다.

자, 봅시다. 서울시 건강증진과의 선데이파크 또봇과 함께하는 하루,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어린이음악선물, 이것이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반단체에서 하는 것은 문화진흥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돈을 받았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기준이 좀 모호한데요 일반기업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저희가 비용을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원장님도 고민이 많겠죠. 관에서 신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온갖 압력과 여러 가지 압력수단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서 그냥 이것은 무료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이대공원 사용료 면제 행사가 자꾸 증가추세에 있다. 이것이 지금 원장님 전결로 해서 사용료 면제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에 정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그 판단기준이 자꾸 모호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는 정말 어떠한 권력기관이나 어떤 곳에서 들어오더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사실 저희가 무리한 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런 적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시 유관기관에서 제안했던 것들도 저희 공원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로 결정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원장님과 가까우면 가능한 거잖아요, 원장님과 가깝지 않으면 안 되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그래서 전결이 누구까지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사장님이 최종 결재권자라면 맘대로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원장님이 최종 결재권자다 보니까 자의적인 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닌 것도. 광진구 문화정책과에서 광나루 어울마당은 작년에 무료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또…….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위원님, 광나루 어울마당은 광진구 전체 지역축제거든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광진구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2016년 서울동아축제는 왜 돈 받았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동아축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받았습니다, 20만 원. 5월 5일, 5월 7일 이것은 받고 광진구 문화정책과에서 광나루 어울마당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안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공문이 갔는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 서울시나 광진구, 선화예술학교 이런 특정한 곳에서 공문이 오면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공공성을 띠었다,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맞다 이래서 무료고, 그런데 일반단체에서 했을 때는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보면 돈으로 따지면 몇 백억이 아니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보면 서울시나 서울시 관련부서, 또 해당 자치구, 아니면 인근 대학교, 여기에 한정돼서 사용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해 주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것을 점점 자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증가추세로 나오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원장님이 아니라 본부장으로 다시 결재권을 상향을 시키든가 그렇게 해서 자의적인 판단이 자꾸 흐려지는 부분, 2015년에 오셨으니까 아는 사람이 점점 많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압력이 점점 많이 생겨서 판단력이 흐려지면 전결권을 한 단계 더 올리셔서 나 모르게 위에 하십시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문화진흥을 위해서 필요하고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정확한 지침 속에서 사용료를 무료화 할 것이냐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지났는데 청계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이 2005년도에 복원공사가 끝나서 지금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청계천을 통해서 대통령도 탄생이 되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내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태수 위원 청계천처장님 나오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청계천 유지관리비는 사실 2013년부터 거의…….

○김태수 위원 이사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들어가는 돈이 72억 7,300, 5,3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자원봉사자에 들어가는 돈이 뭡니까?

○청계천관리처장 김태임 청계천관리처장 김태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생태해설사라든지 통역 자원봉사자를 지금 한 60여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실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당 8,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도 5,500만 원씩 들어갔습니까?

○청계천관리처장 김태임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생태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직원이 하던 부분을 일부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했고 판잣집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에도 정직원 투입해서 하던 부분을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청계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1처 3팀이 운영하잖아요, 61명이 있고.

○청계천관리처장 김태임 네, 1처 3팀 1관리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다음에 공무직은 스물아홉 분 따로 계시는데 인건비가 2015년 49억 2,000에서 지금 2017년은 52억 7,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급료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까, 인원을 더 늘려서 그렇습니까?

○청계천관리처장 김태임 평가급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인 인건비 증가요인이 한 3% 정도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연도별로 유지관리 비용이 점점 많이 든다. 2015년 72억, 2016년 74억, 2017년은 현재 82억 1,100만 원 이렇게 계속 증가가 돼요.

○청계천관리처장 김태임 2017년 자료는 예산사항이고요. 과년도 사항은 실제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대비해서는 ′17년도에도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95% 정도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74억에서 82억, 7억 6,700씩 올린 이유가 뭡니까?

○청계천관리처장 김태임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예산은 78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복원공사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유지관리 하는 데 돈이 많이 들겠지만 노후화가 되어서 돈이 많이 들겠지만 특별하게 지금 전기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일부 항목이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느끼고 있다. 그러면 시설 수리 및 점검, 전기료, 인건비 이런 일부 항목비가 자꾸 증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사실은 우리가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쁘고 즐거웠지만 거의 80억씩 든다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좀 더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항목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계천관리처장 김태임**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계천 같은 경우에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을, 사실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전기료와 인건비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투입되는 청계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은 거의 저희 인력을 쓰지 않고 외부자원으로 하는 쪽으로 계속 인원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대문구 출신 김인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 리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인호 위원**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에서 장애인 차량개조에 관해서 안전성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 해서 국토부에 그것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지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차량심의위원회나 또 저희 자체적인 안전 강화 등을 통해서 차량안전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급 부품 자체는 다 인증을 받은 부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네,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자체는 세계 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이죠, 부품 자체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콜택시 제작과정과 완성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이 나와 주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부분은 저희 장애인콜택시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입니다.

○**김인호 위원** 장애인콜택시는 차량 생산 그러니까 기아가 됐든 현대가 됐든 완제품이 나온 이후에 이걸 개조를 하는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4개 업체가 장애인콜택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 기술 검토라든지 안전성 검토를 거쳐서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네, 그렇죠. 차량 완제품이 나온 이후에 그것을 구입해서 방금 말씀하신 4개 업체에서 개조해서 납품을 시켜서 하는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그 개조 이후에 안전성 검사는 합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그 개조가 끝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기술성이나 안전성 검토는 국토부에서 위임받은 교통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습니다. 그 증을 조달청에 같이 제출을 해야만 등록이 됩니다. 단지 그중에서 자기인증제도라고 인증이 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김인호 위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사장님이 말씀하듯이 부품, 부품 자체는 인증 받은 거죠. 그렇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김인호 위원** 이 부품을 가지고 개조를 했잖아요, 개조. 그렇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김인호 위원** 부품을 용접하고 부착하고 올리고 내리고, 그 개조 이후에 안전테스트나 인증을 받냐 그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받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것을 안 했다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권고 내린 거잖아요, 그것을 하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은 국토교통부 세부기준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 그것 아닙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조 이후에 기술성이나 안전성 검토는 사실 교통공단에서 해서 조달청에 등록을 하는데요, 2014년도에…….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 테스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테스트가 아니고 기술성 검사라고 합니다.

○**김인호 위원** 기술성 검사죠, 말씀대로 하면.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그 결과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 4개의 업체는.

○**김인호 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조한 차에 대해서 테스트 했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김인호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그 결과는 저희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김인호 위원** 국정감사 할 때 안 봤어요? 모니터링 안 했습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아니요. 왜냐하면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그것이 통과된 것으로…….

○**김인호 위원** 고박장치가 뭐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김인호 위원** 고박장치가 뭐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고박,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인호 위원** 그러면 고정장치라고 합시다. 장애인 휠체어가 차에 탔어요. 차에 탔으면 장애인차가 운행을 하면 안 흔들리고 안 밀리고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안전을 담보해 주는 고정장치 이것을 고박장치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저희는 이제 고정장치라고…….

○**김인호 위원** 휠체어가 탔는데 휠체어를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김인호 위원** 그것을 고박장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을 했는데 그 고박장치가 다 떨어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돼서 국정감사에 지적이 나오고 리콜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세부 규칙이 없어서, 세부사항이 없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만들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세계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세계기준은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유럽이나 미국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김인호 위원** 그런 데는 개조 이후에 안전성 테스트를 해요, 개조 이후에.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런 세부규정이 없다고 할지라고 세계기준이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기준을 좀 갖다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하면 전국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모범적으로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밤낮 세부규정이 없다, 국토부에서 안 나왔다. 오죽하면 국가 인권위에서 권고를 했겠어요.

그다음에 평가기준, 이것 구매하는 데 있어서 평가심사표 있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 평가심사표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교통본부에서 만든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든 것입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저희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예전부터 선정위원회에 할 때 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김인호 위원** 이런 평가표에 그런 항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 패럴림픽 있죠? 장애인올림픽 있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네,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선진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올 건데 이런 지적이 있었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만약에 외국 장애인 선수들이 우리나라 장애인콜택시 이동수단 이거 이용 안 하겠다고 그러면 국제적인 망신 아니에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인호 위원** 아니, 2014년에 국가인권위에서 이것 문제 있다고 지적했으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열심히 하든가 국토부하고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안전하고 문제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바로 할 일이잖아요.

교통안전공단에서 테스트했는데 휠체어를 잡아주는 그게 다 떨어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리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리콜 하시겠어요? 아니, 안전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리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교통안전공단에서 테스트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용역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용역이어서 그 안에…….

○**김인호 위원**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도 국토부인데, 2014년도면 지금 몇 년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김인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그런 세부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요. 있으면 서울시에서 천만, 국가적인 그런 서울시에서 그런 선진국 것 갖다가 세부기준 적용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안전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사장님, 제가 주문할게요.

지금 장애인콜택시 구입하는 것 전체 다 안전성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인호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콜택시에 휠체어 탔는데 그게 만약에 접촉사고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풀리고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림 그려집니까? 대책 세워야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인호 위원** 아무튼 행감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내부순환도로에서 한 번 큰일이 있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박진형 위원** 다행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셨다, 그거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사장님도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박진형 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비슷한 구간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랬습니다.

○**박진형 위원** 거기에 두모교도 들어갑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박진형 위원** 두모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첫째, 2013년도 4월에 두모교 공사를 했었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 위원** 공사 내용이 어떤 공사였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가 내진보강 공사를 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조금 두모교 안전에 우려점이 발견돼서…….

○**박진형 위원** 그 당시에 두모교에서 내진보강하면서 받침이라든지 이런 것 바꿨어요. 그런데 편측만 교체를 했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박진형 위원** 그 공사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이것 그 당시에 시공사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진형 위원** 아니, 원래 공사비용이 얼마였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내진공사 비용이요?

○**박진형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6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박진형 위원** 60억 들여서 공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했는데 이후에 신축이음 단차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긴급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2014년도에. 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박진형 위원** 그러고 나서 시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또 감사를 했었네요. 그래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시 감사결과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박진형 위원**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도로본부장 민병찬입니다.

○**박진형 위원** 네, 본부장님.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모교 교량 받침공사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저희 공단이 시설물을 인수받기 전에 도로사업소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박진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그래서 그 교량받침 기존 받침이 한 마디로 말해서 포트받침이라고 쇠받침인데 그것을 일부 탄성받침으로 교체하면서 편측교체가 일어난 사항입니다.

○**박진형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네.

○**박진형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의 감사담당관에서 이게 신축이음부에 단차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조사했었고요, 조사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모교 담당자는 훈계를 했습니다. 이 훈계 내용은 두모교 면진받침 시공 및 가설시설물 시공에 부적정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단차가 발생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실시공에 의해서 무수축의 내부 공극이 발생됐다. 그래서 교체 내진받침에 3~15㎜ 정도의 처짐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공이 잘못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공사는 벌점을 3점을 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네.

○**박진형 위원** 그다음에 감리나 감리담당도 벌점 2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벌점을 받게 되면 그 벌점에 따라서 입찰제한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진형 위원** 입찰제한 조치가 있었나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사실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감사받고 그 사항 전까지는 사업소에서 검사를 했었고 저희가 2015년 1월부터 시설물을 인수했었는데 그 문제는 그 이전에 제기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준공 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그것을 점검해서 지금 단차는 비록 일정 부분 져 있지만 비틀림은 조금 있지만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단지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나머지 편측받침도 같이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준공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안이 정릉천고가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사실은 세그멘트 사이의 틈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먼지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틈 자체가 에폭시로 이렇게 메워진 부분이고, 그래서 정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되고 전수조사를 해서 25개 정도가 발생이 되고 이래서 저희가 현재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 2013년도에 우리가 60억이라는 돈

을 들여서 공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사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해 봤더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공에 있었고, 그 시공 때문에 다시 몇 개를 교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벌점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맞는 팩트죠?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네, 맞습니다.

○**박진형 위원** 그다음에 EQS받침의 장기처짐 특성에 대해서도 정보를 미공개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금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두모교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박진형 위원** 2016년도 3월부터 5월 13일까지 정릉천 유사교량 3개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두모교에서는 세그멘트 이음부 균열이 총 25개가 발견됐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 당시에 받침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량받침이 이렇게 내진성능 공사를 했었는데 한 쪽만 했었고 그래서 그 미교체한 곳이 아니라 교체한 곳에서 EQS받침에 침하가 발생됐다고 하는 게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 이 공사를 했던 업체의 시공이 잘못돼서 이런 침하가 생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박진형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몇 개를 봤더니 재시공 교체가 필요한 교량받침이 182개소, 미교체된 교량받침이 92개소에 대한 조치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시공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박진형 위원** 어디와 하셨어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제가…….

○**박진형 위원** 어디와 하셨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지금 182개소는 하자보수를 했고, 하자보수를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고, 나머지 92개소는 같이 공사를 하는 부분들인데요 시공은 현재 처음 공사했던 매일종합건설에서 수의계약으로…….

○**박진형 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21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 21억 5,200만 원이네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네.

○**박진형 위원** 이걸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네.

○**박진형 위원** 왜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지금 현재 침하원인을 보면 갈지 않은 부분을 양방향 리스크라고 그래서 포트베어링이라고 해서 쇠로 된 재질입니다. 그다음에 그 같은 것을 보면 폴리우레탄 재질로 해서 한마디로 탄성이 좀 있는 재질인데요 애초에 시공 자체에 양쪽을 다 같이 갈았어야 되는데 폴리우레탄 제품은 초기침하와 장기 침하, 침하량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이고, 3㎜에서 크게 10㎜까지 생기기 마련이고, 이쪽 포트받침은 쇠로된 것이기 때문에 침하량이 하나도 안 생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2개를 같이 갈았다고 그러면 같이 내려앉거나 같이 올라가거나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게 시공사의 책임보다도 어쨌든 애초에 받침 선정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편측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준 이유는 교대해서 한 쪽은 갈고 한 쪽은 안 갈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갈 적에는 동시에 2개를 다 갈아야 되는데 만약에 재시공하고 새로 시공하는 것하고 별도로 줬을 경우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하자 자체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시공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박진형 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분명히 공사를 해서 하자가 생겼어요.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 감리도 당하고 벌점도 받았어요. 그리고 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이 아니라 공단의 직원도 인사상 조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긴급진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다시 이 업체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이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하자가 있던 업체한테 다시 나머지도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 말씀이?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 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맞는 건가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제가…….

○**박진형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폴리우레탄 재질이고 나머지는 금속이라고 그랬어요. 폴리우레탄을 만들어서 받침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지금 그 받침 자체가 내진성능을 하기 위해서 한 받침인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진이 왔을 적에 하부에서…….

○**박진형 위원** 알겠는데요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진받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진형 위원** 그러니까 면진받침을……. 지금 이 업체이름이 뭐죠?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매일종합건설이고요.

○**박진형 위원** 매일종합건설이라고 하는 데만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시공은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박진형 위원** 시공사에서 이 제품을 만들지는 않죠?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네.

○**박진형 위원** 이 제품은 가져와서 자기들이 시공하는 거죠?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 위원** 이 시공기술이 이 매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네.

○**박진형 위원** 그런데 이 21억이나 되는 수의계약을 주는 근거로서 말씀하시는 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4조의 가번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가지고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 위원** 그런데 제4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예요. 이 기술,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경쟁업체가 없어요. 단지 이 업체 딱 한 군데만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업체에 하자투성이인 데다 다시 준 거죠?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현재 두모교 25개 균열에 대한 원인이 시공을 잘못하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준공 전에 받침 몰타르가 잘못 채워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명백한 부실시공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설계도서하고 똑같이 시공을 했는데 이게 정릉천고가가 그렇게 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PSC교량의 경우에 하다 보니까…….

○**박진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공사에서 시공할 때에 있어서 별로 귀책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8㎜, 9㎜ 단차가 졌다면 그 단차가 졌을 때 교량에 어떤 영향이 왔을까를 미리 그 당시에 알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준공을 시키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공도서에 만약에 5㎜, 4㎜ 도서에 단차가 안 지고 똑같은 단차를 줬다고 해서 준공을 시켰다고 그러면 시공사 책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소 책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산문제 때문에 한쪽만…….

○**박진형 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벌점은 줬습니까? 부과가 됐어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벌점은 아마 시공사하고 감리…….

○**박진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시공사도 벌점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설계상으로 그대로 했었고 이것을 미리 했었다고 하면 시공사는 벌점을 받지 않았어야 맞아요. 그런데 벌점을 주셨어요. 시공사에 다음과 같은 시공관리 소홀이라고 해서 레벨관리 미흡, 시공 오차, 무수축 몰타르 공극 등 시공관리 소홀로 과다 처짐이 발생했다고 하는 게 서울시 도시안전실 또 감사담당관에서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으로 인해서 그 업체한테 준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업체에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으로 벌점을 3점을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벌점 받고 잘못됐다고 지적됐던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21억에 대한 것들을. 이 업체가 대단히 일을 잘하는 업체여서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업체거나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공사의 잘못은 전혀 없었고 설계할 때 잘못해서 이 설계 때문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공사에 다시 맡겨도 저는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셨고 벌점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잘할 수 있는 업체한테 해야 되는 거고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이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다면 여러 군데한테 기회를 줬어야 되는 거죠. 이 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배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군데 업체한테 어떻게 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당신들이 자신 있냐고 물어봐서 적정한 업체를 만들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는데 182개소에 대한 재시공은 어차피 저희가 업체를 경쟁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했던 업체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리라든가 감독은 저희가 철저히 하면 되겠지만 한 교각에 같이, 교각 공사의 공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각이 있으면 재시공 분하고 그다음에 새로 시공하는 것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교각이 2개가 있으면 8개를 동시에 들어서 동시에 시공해야 되는 부분, 일단은 품질이 다른 슈를 쓸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슈를 쓴다고 그러면…….

이제 두모교가 상행선하고 하행선 2개의 교량으로 돼 있는데요 구리 방향 쪽에서 문제가 생겼고, 또 이쪽 방향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단차가 졌지만 균열이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학술용역을 그 당시에 토목학회라든가 교량구조공학회와 자체적으로 하면서 세부과제로 맡겼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균열의 원인이 뭐고 대단히 위험한 상태인데, 또 상ㆍ하행선 중에서 똑같이 시공을 했는데 하나는 균열이 안 발생하고 하나는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옛날 시공이라든가 전체적인 두모교의 복합적인 문제라고 그 당시에 결론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재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형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죠.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네.

○박진형 위원 이사장님, 저는 공사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지 이런 것들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부실시공이 나고 단차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물에 따르면 분명히 시공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됐는데, 그렇게 해서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이 업체한테 또 수의계약을 21억이라고 하는 돈을 줬다. 그러면 결국 어떤 업체이든 간에 맨 처음에 시공을 했을 때 하자투성이이고 정말 엉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른 부분에 어떤 교체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박진형 위원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했을 때 보면 과연 그게 맞는 행위인가. 결국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 업체 아니고는 다른 데는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그 당시에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 물론 결정은 저희가 하긴 했지만 학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많은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시공을 분리해서 할 방법은 없고요. 단지 방법이 있다면 시공자한테서 그 공사비를 회수시켜서 재발주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저기하고, 또 시공자도 100% 자기과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해서요.

어쨌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다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부실벌점을 받고 부실시공한 업체한테 다시

맡기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큰 그림에서 보면 편측교체에 따른 문제였었다라고,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기 때문에 시공을 맡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형 위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더 특별하게 이런 공사와 관련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도 이 사안을 보고를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서울시나 저희 자문단이나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부득이 이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진형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이해했고, 앞으로 가야 될 …….

○**박진형 위원**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이 업체한테 맡겼어요. 또 하자가 나서 또 편차가 생기고 또 시민들이 못 다니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하면 결국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퇴사해서 없습니다, 그 당시 결정할 때 없었습니다. 이지윤 이사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지윤 이사장님이 결정하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나요. 주저앉거나 단차가 많이 커서 교통사고 나고, 시민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하면 또 그때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또 공사비는 그대로 수십억씩 들어가서 결국은 그것 했던 업체한테, 하자투성이를 냈던 업자한테 다시 또 그 공사 맡겨야 되고, 이런 우스운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짚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했을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당시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공할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에 했던 어떤 현장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서영진 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성중기**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짧게 한다니까 짧게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까 경영개선자문위원 설치에 대한 근거 주시고요. 그 프로필 아직 안 왔고요. 해외연수 관련해서 아직 자료 안 왔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성중기**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 추모시설운영처장님, 박호영 처장님이신가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네,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입니다.

○**신원철 위원** 그 직책 맡으신 지가 작년 12월 21일이네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 전에는?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그 전에는 주차시설운영처장이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작년에 11월 21일인가 제가 행감 때 시립승화원 부대시설과 관련해서, 즉 통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지적사항에 제가 봤습니다.

○**신원철 위원** 보니까 작년 행감이 끝나고 한 달 있

다가 승화원 부대시설 강제집행이 진행됐어요. 그렇죠?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네, 그렇습니다. 12월 21일자입니다.

○**신원철 위원** 그때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행감장에서 내비치셨어요.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집행 후에도 6개월간 부대시설 운영 못 했죠?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아직도 못 하고 있고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와 원활한 협의를 했어요. 그쪽 업체하고 계속해서, 우선은 지역주민 민민갈등이, 저희하고의 갈등보다 민민갈등이 더 컸습니다. 기피시설대책위원회와 혐오시설대책위원회끼리의 어떤 갈등요인이 컸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한 16회를 했고요. 또 고양시와 서울시간에도 한 8회 했고, 그다음에 갈등조정용역을 12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용역을 주고 있고요. 또한 고양시에서 시민들 150명 해서 공청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고양시, 공단, 지역주민 통반장 해서 16명으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3회 운영되고 있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것이 통일로가 지역주민들에게 원래 합의한 주민복지기금을 내지 않아서 결국 생긴 문제죠?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네,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기금을…….

○**신원철 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저희들 목표는 금년 말까지 일단 서울시와 고양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신원철 위원** 합의무산 시 어떻게 할 거예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합의무산 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공단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직영한다는 것을 기피시설대책위원회에서 계속 합의서에 의해서 주민한테 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는 최성 고양시장과 서울시장 간의 큰 틀에서는 합의하고 작게는 부대시설 정상화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원철 위원** 공단 직영을 추진한다면 예산은 반영되어 있어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예산은 올해 8억을 시에 요청했는데 반 정도가 삭감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하더라도 상당한 그런, 예산적으로는 내년도부터 한다고 저희들이 올렸지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것이 하여튼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네, 맞습니다. 바른 말씀입니다.

○**신원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에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처장님.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안녕하십니까?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신원철 위원** 아까 우리 최판술 위원님께서 컬쳐리퍼블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네.

○**신원철 위원** 고척스카이돔 지하판매시설, 문제가 많죠?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지금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지금 12개 업체 중에서 10개는 강제집행이 8월 4일자로 집행이 되었고요, 2개 업체는 강제집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원철 위원** 명도소송은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현재 12개 업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공단에서 응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원철 위원** 아까 자세한 내용은 최판술 위원님

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사실은 12개 업체들은 생존권 문제일 수도 있고, 참 안타까운 현안입니다.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네, 감사합니다.

○신원철 위원 이사장님, 이 내용들 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것이 시립승화원 운영시설과 관련돼서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주민복지기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행감 때도 말했듯이 거기와 이 내용이 계약에는 담기지 않았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신원철 위원 주민 간의 구두합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민민갈등의 원인이 된 거죠. 그런데 최초계약 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공단이 명확히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척돔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컬쳐리퍼블릭, 여기가 능력이 되는 업체예요? 운영자금 능력도 원활하지 않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업체였던 것으로 저는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못했던 것 같고, 당시에 프로야구시즌 개막에 맞춰서 지하판매시설을 빨리 개장하려다 보니까 면밀한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원철 위원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면 이게 누가 손해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시민들께 손해죠.

○신원철 위원 저는 이 사안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안타깝고, 업체 선정이 미흡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파생되는 문제인데 이사장님 말씀대로 피해는 또 우리 시민들이 다 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일단 공단이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고척돔도 거의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저희가 운영사로 선정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공간 자체가 수익시설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공간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일하는 방식에 약간 한계 같은 것들은 있지만 특히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 신입사원까지도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컬쳐리퍼블릭 보면 지하점주 간 수익금 미배분을 하고, 또 횡령ㆍ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고, 일부 매장 그냥 무단 변경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관리책임은 우리 시설공단이 자유스럽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좀 유념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다음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님 좀 나와 보세요.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입니다.

○신원철 위원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이 자료 보셨어요, 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신원철 위원 지방공기업평가, 못 보셨어요?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아, 고객만족도…….

○신원철 위원 이거 보고 하실 얘기 없으세요?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저희가 2016년보다 한 1.7% 상승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게 보니까 추모공원 견학사업이 제일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월드컵보조경기장은 72.8%로 가장 낮아요.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사실 경쟁률이 한 100 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용하

지 못하는 시민들이 그런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회적 만족인 서비스의 지속성은 높아요, 90.7%야. 그런데 서비스의 대응성이 되게 좀 낮게, 88.1로 좀 낮게 나와요. 이건 뭘 반증하는 자료일까요?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나름대로 직원들의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게 예를 들면 불만사항 해결 절차가 갖춰져 있지 않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거든요.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해결 매뉴얼과 직원들의 서비스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분기에 한 번씩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요?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전 직원 모아 놓고요…….

○**신원철 위원** 처장님이 그냥 어떻게 하시냐고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전화응대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주요시설 안내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장 같은 것 잘 챙겨 입고 명찰 같은 것 잘 달고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여기 측정항목을 보면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해결하는 절차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의 직원들은 친절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항목이. 개선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앞에 보면 최근 3년간 사업별 고객만족도를 보면 다른 사업 보면 한 보통 80%대 이상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월드컵경기장은 70%대 점수인데, 일단 낮잖아요. 그러면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짧게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사장 핫라인에는 좀 많이 들어오나요, 홈페이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원래 감사실 쪽으로 연결되게끔 해야 되지 이사장 핫라인이라고 그러고 아래에 부패공익신고센터하고 같이 넣고 지금 겹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감사실로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사장 핫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신고나 제안을 하는 경우는…….

○**우형찬 위원** 이사장님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감사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시민의 소리에서 나오는데 자료를 갖다가 올리려고 했더니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 불편사항이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민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답변하는데 답변하는 자세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군데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서울시설공단 상담원 고발을 했어요. 남산 1호터널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민

원 제기하신 분 이름을 꼭 넣어야 돼요?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럴 필요는…….

○**우형찬 위원** 뭐뭐뭐 님, 이지윤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지윤 님 말씀대로, 이지윤 님 하시는 대로, 이것 얼핏 보면 꼭 사감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시설운영처예요. 처장님 어디 계시죠?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인걸** (집행부석에서) 네.

○**우형찬 위원** 아니,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민원 제기하시는 분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까지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고쳐야 될 부분이죠? 고치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고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공무국외연수 3,000만 원 이하 부서별 자체 지원여행사 관련해서 센터투어는 한 군데에 나왔던 업체니까 좋은데 브라이트스푼이라는 데는 일본여행 전문사입니다.

나오지 마시고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일본전문여행사예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일본전문여행사고, 홈페이지를 봤어요. 봤더니 일본여행 전문사면서 우동 관련해서 그 쪽인데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에 지원여행을 한다, 조금 납득이 안 가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간 지원 여행사가 재미한일과학자협회예요.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다음에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가는 알티비네트웍스 이것도 역시 참 찾기 힘들고요, 어떤 회사고, 그 정보가. 위더스투어도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는 기조실 직원 하나가 공무국외연수 가는 것 롯데관광에서 한 것 제가 정확히 알고 있고요. 제니스트래블, 근거 있는 회사가 이것 딱 하나 있네요. 그다음에 아까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갔을 때 여행사 업체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업체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오늘 한 번에 끝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각 여행 보고서가 다 있을 테고 비행기 티켓을 끊은 주체를 주시면 확인이, 정말 연수했는지 이 답변대로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이하로 알뜰하게 가시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도 결과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직원 징계내역 좀 한번 볼게요, 이사장님.

2015년도에 주차요금 징수 부적정은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추모시설처 승화원에서 저희가 2016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요. 당시에 민간 용역회사 직원을 저희가 직고용해서 준공무직 직원이 주차요금을 부적정하게…….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편익을 취했다? 사익을 취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17년 1월에 있는 것은요? 상주 무료주차권 악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17년 1월 저희 감사실 자체감사에서 비슷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사실 이 민간에 있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 면담을 한 결과 어떻게 보면 과거에, 사실 금액은 굉장히 소액이고요. 한 회에 1,000원 이런 부분인데…….

○**우형찬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안 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 부분은 바로 잡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16년 5월 19일에 부적절한 언어 사용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16년 5월 19일 홍 선생님께서 부적절한 언어사용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견책 받았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16년 10월 14일에 권

선생님은 성희롱으로 감봉 3개월 받았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견책 부분에서 장애인콜택시가 물론 민원은 많지만 그 근무하시는 분들도 또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견책이 있는데 다른 야간근무 중 취침도 견책이고요, 음주운전도 견책이에요. 양형기준이 너무 장애인콜택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과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 관리책임, 중대사고 미보고 이것도 견책이고, 음주운전이 견책인데 교통사고 어쩔 수 없이 내는 사고에 대해서도 똑같이 견책을 준다는 게…….

그다음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 근무시간에 PC방 출입하신 분들도 견책이고, 당직근무 중 무단이탈해서 음주하신 분도 견책이고, 품위유지 위반해서 동료직원과 몸싸움한 분도 견책이고, 너무 안 맞잖아요? 장애인콜택시 일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좀 가혹하지 않을까요? 견책이라는 게 큰 것은 아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는 건데 장애인콜택시 서비스직은 과거의 경우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한테, 그러면 역으로 근무시간 무단이탈하시고 음주운전하시고, 이게 견책이면 조금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2016년 11월에 있는 음주는 견책이고요, 무면허운전은 감봉 한 달이에요. 이 차이는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사안별로 과거에 어떤 징계이력이 있었는지 또는 평소의 근무태도 이런 것들하고 연관해서 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출장업무 중 사적용무 및 음주도 견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하신 몇 천 원이라고 하신 분들은 정직 3개월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하시면서 운전하면서 사고 많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견책 뭐 꼭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비중에 맞춰서 다른 정직원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사고 난 게 좀 있죠. 미성년자 동거녀 자녀 특수협박, 이것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직원?

정직 3개월로 나왔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것은 특수협박인데.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족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벌금 700만 원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여기서 파면ㆍ해임은 집행유예부터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이분이 북한주민이고 해서 여러 가지, 또 그 당시…….

○**우형찬 위원** 원래 사규상 집행유예부터 해임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금고 이상.

○**감사 정권수**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생기게 되면…….

○**우형찬 위원** 금고 이상은 해임, 그다음에 벌금형은요?

○**감사 정권수** 벌금형은 중징계에 해당되는데요, 그것은 고등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우형찬 위원** 해임을 할지 정직을 할지?

○**감사 정권수** 네, 정직, 감봉을 할지.

○**우형찬 위원** 성매매특별법 위반은 뭐 나왔습니까? 벌금형 나왔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분은 정직 3개월인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여기는 나와 있으니까. 그분이 형사처벌을 받은, 형사처벌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벌금형인지 금고형 이상인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 금고형……. 내부적으로 이렇게 냈는데 사실 금고형 이상이 나왔으면 이제 해임 절차를 밟아도 이중이 되니까 해임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뺑소니도 뭐가 나왔는지 모르시고요? 요즘 뺑소니에 대해서 법이 엄격해서 금고형 이상이 많이 나오던데. 그다음에 노조비 업무상 횡령 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결정이 문책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법원판결을 받는데 금고형 이상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그것을 감안해서 징계양형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횡령 같은 경우는 웬만한 금액이면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금고형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뺑소니도 그렇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횡령이지만 공금횡령은 아니고요 조합비 횡령이어서…….

○우형찬 위원 업무상 횡령이라서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공금횡령하고는 다르게 적용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감사 정권수 정직 6개월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나온 거예요?

○감사 정권수 네. 업무상횡령은 공금횡령과 달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문이라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 정권수 네,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집행유예 2년으로 나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해임되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해임은 아니고 정직 6개월요.

○우형찬 위원 집행유예기간인데요? 집행유예도 금고형 이상이 나온 거잖아요.

이것 아마 개인신상이라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금고형 이상을 받았으면 그에 준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기서 징계를 했지만 법원에서 더 엄한 처벌을 받았으면 그것에 따랐어야 되는데, 이중처벌이 될지 안 될지는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직원에 관해서, 성적인 부분도 있고. 좀 엄격한 적용을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약한 자에게는 좀 더 관용을 베풀고 간부급 직원들에게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징계 차원에서 끝나면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열하게 사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무슨 건인지는 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짧게 하나만 더, 나중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요즘에 공공자전거, 공포의 따릉이 이런 얘기 이사장님 들어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나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지금 이용률에 비해서 현실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한데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이용대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전년 6월 대비해서 567%가 증가했습니다. 그거야 따릉이를 확충하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용률이 그만큼 늘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자정부터 새벽 6시에 작년부터 올 6월까지 5만 7,000여 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귀가하는데 저녁 늦은 시간대에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자정대 하는 것은 차량 놓치고, 또 음주 이후에 늦어서 이용하고. 그런데 음주방지 시스템이나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음주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 기준이 아직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국토부에 서울시와 함께 음주단속이나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정책제안 중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순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 안전사

고 예방하도록 밤에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국가별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수준을 보면 아주 다른 나라들을 보면 선진국들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 해야 다른 타 시도에서도 서울시를 모델로 해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기다릴 일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 새벽시간대에, 그러니까 음주 그럴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 시간대에 쓴다는 것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음주하신 분들은 대여해서 사용을 못 하도록, 이 장소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업해서 홍대 주변 이런 젊은이들이 늦은 시간에 음주하고 이용하기 쉬운 그런 곳에 예방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고정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그 시간대에는 음주운전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영어나 중국어 이런 안내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리고 유어스 관련해서 정책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하기 전까지야 오락가락하고 이현령비현령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책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게 충실히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소고발 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대부분은 취하가 됐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민사소송은 사용료 납입만 되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형사소송은 관련하여 갈등이 있을 때 심하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남아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책결정은 다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하고 그것을 수용만 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의견개진도 못하고 그랬었잖아요. 결론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이것을 수탁 받아서 하는데 결국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질 일이 생기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자진퇴거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몇 개 상가나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자진퇴거한 데가 한 군데 있고요. 그러니까 점포…….

○**김인호 위원** 공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공실이 3개 발생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전에는 아주 거기 못 들어와서 줄을 서고 경쟁이 치열했던 곳인데 이제 공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긴 공실은 어떻게 입주를 시키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은 제한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상가 성격상 일반 최고가입찰을 하기는 여러 가지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경쟁을 통해서 실력과 여러 가지 경험을 갖춘 상가에 한해 제한하여 경쟁을 하고, 그중에 최고가입찰을 한 곳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분들 퇴거사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서로 선호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스스로 나가는 이유가 과연 무얼까. 그다음에 최고가 선정을 한다는데 그러면 기존 이분들은 특혜 조례에 의해서 5년 보장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최고가 입찰하는데 5년 줍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5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그럽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선정위원회는 상인회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인호 위원** 상인회면 장사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된 상인회를 말씀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라 저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누차 하는 얘기지만 돈 많이 벌고 세금 잘 내고, 또 서울시에 기여를 하면 나는 그 목적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벌써 뒷이야기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명성을 얻었던 상가니까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 제가 미리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벌써 안 좋은 얘기가 들립니다. 정말 공정하고 들어오면 상가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위주의 사람들로 뽑아서 그 명성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최근에 제가 유어스에 가본 결과로는 과거보다는 많이 안정화되어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요. 또 중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도 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공단이 책임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 박진형입니다.

지금 상벌위원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횡령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가 있었나.

지금 이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형 위원**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박진형 위원** 이분의 비위사실이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전 노조위원장이고요, 조합비를 유용한 것에 관해서 고소고발 되었습니다.

○**박진형 위원** 채널A에는 조합비 빼돌려 카드 49장 펑펑 이렇게 해서 조합비 1억 1,000만 원을 개인의 급여통장으로 보내고, 1억 6,000만 원이네요.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 상벌위원회를 열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열었습니다.

○**박진형 위원**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요? 결정이 어떻게 났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정직 6개월로…….

○**박진형 위원** 1차가 정직 6개월이었어요?

○**감사 정권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해임됐고요. 이분이 법원에 제소를 해서 대법원에서 해임이 정당하지 않다고 거꾸로 판결을 받아서 2차 보통상벌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6개월로 했습니다.

○**박진형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임을 하신 거죠, 1차에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공단 명예훼손과 직원 품위유지손상 이런 부분입니다. 공금횡령은 아니라고…….

○**박진형 위원** 그 부분에 해당하면 우리가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는 거죠? 품위유지라든지 이 부분 가지고도 파면할 수 있죠? 해임할 수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박진형 위원**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을 좀 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해임할 수 있습니다.

○**박진형 위원** 파면, 해임 이런 것 있잖아요, 성실의무 위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인사규정 시행 내규예요. 시행 내규에 보면 징계양정기준이 있어요. 그중에 보면 성실의무위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파면, 해임 할 수 있다.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

리침해 이것도 파면이나 해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박진형 위원**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징계를 1차로 해임을 주셨고요, 2차에 의해서 감경을 해 주신 거예요. 제 말씀이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박진형 위원** 제53조의3 징계의 감경사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상벌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나 별표 9 -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50조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차에 해임받았는데 2차에 감경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박진형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횡령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죠? 업무상 횡령이잖아요, 이분이. 비위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업무상횡령과 관련해서 공소시효는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7년. 7년이면 이 공사에서 만든 인사규정 시행 내규에 따르면 시효가 5년 이상인 비위, 5년 이상 되는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1차로 해임을 했으면 그 해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임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왔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박진형 위원** 해임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공금에 의한, 공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임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공무원…….

○**박진형 위원** 잠깐만요. 성실의무 위반이나 복종의무 위반 등 징계ㆍ양정의 기준에 보면 파면에 해당하는 것들, 여기 성실의무 위반도 기타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할 수 있습니다. 해임 이상 할 수 있어요. 이 규정으로 우리가 파면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박진형 위원** 무슨 말이냐, 이게 공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금에 의한 횡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하는 기준을 댔을 때 맞는 거고요. 성실의무 위반이나 아니면 기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공단의 품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상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유로도 해임 이상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박진형 위원** 승화원에 주차관리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주차관리 용역회사 직원인데 이분은 해고를 시키셨네요? 이분은 주차장 요금 중에서 47만 원, 이것 수익금 부족한 것 자기 개인적으로 썼다라고 해서 해임을 시킨 시설관리공단이 이분은 무려 1억 6,000만 원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썼다, 개인적으로 유흥비 썼다, 유용해서 썼다라고 해서 3,500만 원에 대해서 법원에서 “나는 그렇게 썼습니다.”라고 인정하신 분이에요. 이 인정하신 분은 정직 6개월 당하고 47만 원 받으신 분은 과감하게 해임 받는 게 이게 서울시설공단의 상벌 기준입니까?

그리고 규정에도 위반되게 공소시효가 5년 이상인 것은 감경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사유를 충분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해서 박원순법 만들고 김영란법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는 지금 이 시점에도 여전히 힘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비굴하게 구는 시설관리공단입니까? 만날 그렇게 눈치나 보면서.

저는 정당하게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호받는 데 있어 저도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지위를 남용해서 비위를 저지르고 남에게 심각하게 손해를 미치고, 조합원들한테 손해를 미치고, 여기 계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품위에 대해서 손상을 미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경해 주고 눈감아 주고 덮어주고 하는 그런 시설공단의 이 집행부로 봐서는 결코 제대로 청렴하게 직원들한테 잘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 과감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이 구축사업이 언제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우리 교통본부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올해 안에 2만 대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마무리 되면 이제 모든 운영업무는 우리 공단에서 넘겨받아서 운영할 계획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지금 구축 자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다 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제품이 통상적으로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 따릉이는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명확하게 명시는 안 돼 있고 통상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게 정확히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2만 대나 되는 따릉이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명시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AS 기간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제가 정확하게…….

○**김제리 위원** 보증수리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 공공자전거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입니다.

저희가 자전거 하자보수를 1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 1년간?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유지관리비용을 요구했는데 2016년도에 1억 4,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자재 구입비가?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1억 4,300만 원이 지출돼 있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게 전부 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구입한 금액입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특수제작으로 구입해 왔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 따릉이가 ′15년도 9월부터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금 현재는 조직이 1처 2팀 1관리소로 돼 있는데 향후에 내년에는 어떻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지금 내년도에 2만 대 운영을 준비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소를 한 군데 더 운영을 해서 2팀 2관리소로 지금 서울시에 의견을 조회해 두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총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은 165명으로 돼 있는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현재 실질적으로 정원은 179명인데요 저희가 재정도 있고 그래서 감소운영으로 16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관리소가 생기고 배송인원과 정비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49명을 서울시에 지금 승인 요청을 의견조회 해 두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차량도 보니까 지금 현재는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지금 배송차량만 48대고요 업무용차량까지 하면 54대입니다.

○**김제리 위원**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네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내년에 한 10대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금 현재 54대라고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김제리 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는 운행차량을 한 82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것은 마지노선이고요 저

희가 점층적으로 배송차량을 늘려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금 사실상 공제배상보험료도 들어가고 있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금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지금 저희가 자전거 이용 시민에게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전체 이용자 대수에 이용자 시민에게 보험 든 게 3억 5,800만 원 종합보험을 들어놓고 있고요. 영조물보험으로 2,700만 원 들어놨습니다.

○**김제리 위원** 2만 대 구축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내년도에도 사실상 저희가 계속, 보험사들이 저희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대한 사고율을 기대보다 더 낮게, 발생이 낮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년도는 한 5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제보험료가 11억 7,000만 원, 사회보험 부담이 7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수치는 어디에 대비해서 나온 것입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저희가 현재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현재 1대당 운영건수의 비용이 종합보험이 5만 1,000원이고요, 공제보험은 7,200원입니다. 그 가격으로 2만 대 운영했을 때를 대비한 산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상 저희들 계획은 그러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계획하고 늘 일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우리 따릉이를 보면 노외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명이라든가 고장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이게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공간에도 우리가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판단처럼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도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공간을 대부분 부대사업으로 사업수익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에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공사와 노력해서 지하에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난주 교통공사 행감 때 보니까 거의 300개 이상의 공실이, 약 300개가량의 공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실을 자전거거치대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 외국만 그런 사례가 아니라 사실 지방에서는 지하철 공간 내에 개찰구 안에다가 일반자전거 대여장소가 많이 확보돼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서도 꼭 지상공간만 어렵게 구축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지하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운영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운영비를 보면, 향후 추이를 보면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내년도가 147억 5,000만 원, ′19년도가 153억 9,000만 원 또 2020년에는 158억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냥 추계일 뿐이지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영역에서 좀 더 꼼꼼하게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수입 회계처리는 다 우리 공단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공단에…….

○**김제리 위원** 수입은 사실상 우리 운영경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저희들이 그래도 처음에는 한 50%를 생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훨씬 못 미치고 있지 않

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따릉이에 대한 지적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운영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다시 분석하고 또한 이게 투자대비 효율성이 얼마큼 있는가도 우리 공단에서는 각별하게 유념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향후에 또 3년 후에, 5년 후에 이게 더 확대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중단될 것인지 이것 또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따릉이가 시민들로부터는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상당한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담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또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올해까지는 이제 확대 구축과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왔다면 이제 경영 효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그 세부적인 사안에 좀 더 체계를 갖춰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발생되는 편익 중에서 보면 여가활동의 증가가 83억 9,600만 원으로 산출해 놓고 있어요. 여가활동의 많은 부분이 편익 부분에 나타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따릉이의 고장으로 인한 안전문제, 그래서 우리가 따릉이를 정말 유지보수 하는데 철저히 해야 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한순간에 어떤 브레이크 사고라든가 우리가 예측 못한 고장이 발생하면 도로상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핸들 조작 미흡으로 해서 차대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것 앞서서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좀 이따 하시고 장우윤 위원님 하고 하시죠. 장우윤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우형찬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시한 대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이어서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 어린이대공원 내 팔각정 운영이 제대로 정상운영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2억 8,800만 원 들여서 편의시설 리모델링하고 팔각정 활용방안 용역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나온 팔각정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제시가 되었고 개선방안을 어떻게 제시하였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당시 용역, 그러니까 사실은 그전에 이랜드에서 식당을 할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당시에 입찰을 해서 이랜드에서 낙찰이 됐었는데요 당시에 3억 정도의 수익금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저희가 경영수지 개선, 경영효율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던 때여서 3억의 수익금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저희 자체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아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도 역시 그 공간의 특성상 어떤 정상적인 사업도 3억의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서 성공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라든지 시설의 현황이라든지.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보다 유익한 콘텐츠를 유치하되 임대료는 좀 더 많이 낮춰야 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나 저희 안에서 계속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달성에 주력한 나머지 수익성이 증대되는 쪽으로 계속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도서관이랑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약이 되어 왔었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의 결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서 지

금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우윤 위원** 2015년 리모델링 공사 준공 후 정상 운영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고 2016년도 1년 후에도 연구용역 다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매점 시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도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장우윤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콘텐츠 하겠다고 해서 유기농 매점을 추진했지만 유기농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참여업체가 적고 이래서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때 이지윤 이사장님이 문화체육본부장이던 시절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이후 2016년 7월부터 얼마 전 2017년 7월까지 세계공룡대전 개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체험시설 퀄리티나 요금문제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 위원** 그래서 2015년, 2016년 두 차례의 팔각당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도 실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했던 사업들이 다 좋지 못한 결과들을 낳았는데 무엇을 간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2016년에 공단이 여러 가지 서울시와 성과협약도 했고 수익성을 증대해서 성과를 높이려는 그런 부분에 주력을 했는데 사실 어린이대공원의 성격과 팔각당의 위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공공성에 부합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지금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 위원** 지금 최고가 입찰로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동안에 계속 최고가 입찰로 들어와서 수익이 안 나니까 포기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거듭되었습니다.

○**장우윤 위원** 입찰공고 후 여섯 번 유찰되고 지금 7회차 기존 3층 운영자가 입찰했는데 그것도 아까 언급했던 어린이도서관 활용계획을 듣고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분도 베이킹클래스나 야외카페 운영 못 하겠다고 영업중지 통보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습니다.

○**장우윤 위원** 그래서 영업운영을 포기한 업체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계약포기에 따른 이런 부분도 처리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제 팔각당이 외부 카페를 제외한 모든 공간이 공실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사실 어린이대공원의 팔각당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설은 계속 노후화되고 또한 시민들의 이용패턴이나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설의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시설운영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설계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 공감하고 있고요.

팔각당에 대해서는 사실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계속 기대하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1년 계약으로 한시적인 콘텐츠를 운영하고 그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좀 더 공공성의 성격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 위원** 2018년도 예산계획에 보니까 보수보강사업으로 한 2억 정도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엇을 보수하려고 하나요? 보수하면 공실이 좀 나아지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것은 안전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입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주요 건물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1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팔각당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까지 같이 합쳐서 2억을 저희가 계상하고 있고요, 팔각당은 1억 내외에서, 균열간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우윤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어린이대공원에 가족들과 함께 가면 팔각당 앞에 가서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한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각당이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그분들한테도 추억의 공간이 되려면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콘텐츠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설을 보수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원래 3억 정도 수익금이 발생했던 것에 저희가 약간 만회해 보고자 계속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알아봤었는데 제 생각에 좀 더 시민들한테 공감되는 콘텐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익 부분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장우윤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앞서 했을 때 자료요구한 부분들이 아직 안 와서요. 제가 그 검토를 해야 좀 더 질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자료가 되는 대로 주셨으면 하고요.

앞서 공영주차장 그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영주차장의 낙찰가격을 봤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갖고 계시나요? 검토해 보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 위탁금 수입요?

○**장우윤 위원** 올해 들어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돌렸잖습니까? 그러면 예정가격은 보통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원가조사를 통해서 예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장우윤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낙찰가격이 죽 보니까 평균은 130%인데요 강남권 같은 권역은 거의 150% 이상 상회합니다. 이렇게 높다는 것은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습니다.

○**장우윤 위원** 그래서 주민 세금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이 시민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흑자가 나는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돌리는 문제도 이게 바람직한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권 1구역은 예정가격이 10억인데 17억에 낙찰을 받았고요, 4권역은 9억으로 했는데 17억에 낙찰을 받았고, 6권역도 한 10억 예정가격인데 17억에 낙찰 받았어요. 다 그렇게 150% 이상 되고, 강북권역도 4권역 같은 경우는 19억이 예정가격인데 31억에 낙찰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기존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32억 정도, 더 이상 낙찰률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수익이 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통합관리 운영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영효율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통합관리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다시 줄 때는 공영주차장 선정기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한테 줄 때에 그 선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사실 민간위탁 주차장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는 서울시의 결정사항이기는 한데 선정할 때 어떠한 입찰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 위원** 이것을 서울시에서 받아왔을 때 통합운영을 하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민원도 많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우윤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시설물이나 영수증 미발급, 아까 전에 말씀했던 여러 가지 민원거리들을 보완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관리 운영하면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서울시와도 협의하겠습니다.

○**장우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서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진**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의심스런 용역이 많이 보여요. 2016년 것은 빼고 2017년 것을 봐도 2017년에 협력업체 모니터링 및 전화응대서비스 점검 용역, 이것 어디서 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홍보마케팅실에서…….

○**우형찬 위원** 홍보마케팅팀……. 어디서 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죄송합니다. 감사실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1억 9,900만 원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비슷한 청렴아카데미 및 청렴콘텐츠 운영용역, 간부 용역 이것도 2개 합치면 2,800이 돼요. 아마 쪼개기로 나간 것 같거든요. 수의계약으로 나갔네요.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가입용역 3억 8,495만 2,000원도 수의계약으로 나갔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동대문주차장 분전반 제작구매 설치는 1,960만 원이에요. 40만 원만 살짝 얹으면 전자입찰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고, 남산3호 혼잡통행료 미납차량 인지시스템 구매설치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DDP패션몰 경품구매 하나는 1,930만 원 하나는 1,226만 원, 2개 합치면 3,100이죠? 쪼개기죠? 제목까지 똑같아요. 이것 누가 입찰 냈습니까? 왜 쪼개기 해서 냈죠?

○**교통운영시설처장 백인걸** 교통운영시설처장 백인걸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전부 카드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금을 산 거거든요. 두꺼비 금 산 건데 그것은 어떻게 쪼개든 안 쪼개든 간에 같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형찬 위원** 전자입찰을 왜 안 하셨냐고요?

○**교통운영시설처장 백인걸** 그러니까 금은 시세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금이요?

○**교통운영시설처장 백인걸** 네.

○**우형찬 위원** 패션모자 외 3종, 리파캐럿 외 4종인데 무슨 금이에요?

○**교통운영시설처장 백인걸** 아, 행사대행업체요?

○**우형찬 위원** 아니요, 경품구매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도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아스콘 구매 아까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했던 것 12억 7,100만 원짜리 수의계약 하셨죠? 그다음에 용역에도 이상하게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2억 4,000만 원짜리 2017년 내진성능 개선 실시 용역도 있고요. 박스거더교 안전강화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5억 5,900만 원 수의계약,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죠? 일체형 리프트 LED경광등 구매설치는 1,998만 원이에요, 딱 2만 원 빼고. 입찰 안 하려고 2만 원 빼셨네요. 전용도로 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도 1억 9,900만 원 수의계약 하셨어요. 또 보면 작업화 구매 해서 1,938만 원, 간당간당하게 해서 다 수의계약을 해요.

용역도 그래요. 용역도 1,995만 6,600원, 공기질 자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1억 7,000, 이걸 왜 수의계약을 하죠? 용역 관련해서 다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 많아요.

이거 저한테 주신 것에 따라서 지금 보는 거거든요. 2017년 하나만 봐도 그래요. 공기정화 살균기 임대도 수의계약, 서울어린이대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1,849만 1,000원, 폐기물 처리 용역은 1,800만 원,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빼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위원님, 사실 저희 총무처에서 계약 관련 심의하면서 그 기준이 되지 않는데 수의계약은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왜 이렇게 금액, 그러니까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되지만 업무 추진상 굉장히 시일이 촉박할 때…….

○**우형찬 위원** 그 정도로 시일이 급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공무직 공개채용 대행용역은 2,9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인데 이게 그렇게 급한 거예요?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또 쪼개기 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사실 공개경쟁입찰의 경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

○**우형찬 위원** 이사장님, 그것 하라고 지금 앉아계시는 거예요. 임의대로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서 살짝살짝 내려서 얹고, 2,000만 원 수의계약…….

지금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여기가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다같이 한마당교육장 임대 뭐, 각종 용역을 보면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 있고, 이게 뭐가 시간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4,000만 원짜리, 1,994만 원짜리 수의계약, 이것 아무리 바빠도 수의

계약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잖아요. 수의계약이 금액이 너무 많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마 수의계약 사유를 검토해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우형찬 위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하고 지금 맞춰서 봤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과연 그렇게 많을까요? 왜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회계용역 2,200만 원, 재무조사 용역 9,500만 원, 다 수의계약이에요. 공단 화장실 통합 구매가 2억 7,000, 이게 수의계약으로 할 만큼 급한 것인가요? 물론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해 줘야 되는 곳들이면 거기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리고…….

○**우형찬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것 하나하나 더 볼게요.

추모공원 유지관리 용역도 굉장히 많고요, 2,600, 2,700, 4,600. 미술조형벽 제작설치 용역 3,400만 원짜리를 왜 수의계약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유찰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유찰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여기는 수의계약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네, 유찰돼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돌린 것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두 차례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알겠습니다. 현대화 연구용역은요? 시립승화원 현대화 연구용역은 왜…….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그것도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납득하기가, 용역에 그렇게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고요? 서울교통공사 하면 30개에서 50개까지 쭉쭉 들어오는데?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추모공원 화장로 기능보강 설치는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17억, 16억인데.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 특이한…….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그것은 그 제안한 업체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형찬 위원** 이것은 그때 제가 한번 질의했기 때문에 알겠고요.

유류업체 선정, 명패 제작 설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그것 역시 그것을 제작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공개경쟁으로 입찰했는데 유찰됐어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네, 많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생사문화주간 시설물 임대 설치 및 현수막 출력 등으로 1,969만 원이에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그런 것은 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생사문화주간이면 1년 전부터 하잖아요. 몇 만 원 슬쩍 빼서 수의계약으로 가셨잖아요.

주요사업장 시민의 소리 분석 용역 1,940만 원, 60만 원 얹으면 딱 되는 거잖아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컨설팅 용역은 2,100 수의계약, 수의계약다.

우리 이사장님 새해 첫날 시정 영상 촬영하는 것 1,700인가를 잡으셨더라고요, 물론 수의계약으로 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것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우형찬 위원** 여기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런 부분은 저는……

○**우형찬 위원** 제가 길게 이어지기 뭐하니까 좀 정리를 하면요, 이거 하나 다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아, 여기 있네. 2016년 서울시설공단 대표 홍보영상 영상제작 용역이 1,890만 원. 대표면 우리 이사장님이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아니, 제가 아니고요. 공단을 대표하는…….

○**우형찬 위원** 1,890만 원 수의계약.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전체적인 공단의 모든 사업을…….

○**우형찬 위원** 본부장님, 동영상 가격단가 부풀리기 어떤지 아시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2017년만 봤어요. 딱 가죠. 이번 기회에 바로 잡죠. 계약명 있잖아요. 계약 부서, 여기 계약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책임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그 계약명하고 계약일자, 이게 쪼개기인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담당부서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으면 그 사유, 이것을 정리해서 똑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이것 이번 기회에 바로 잡자고요. 수의계약이 이렇게 4만 원 빠지는 수의계약을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돔경기장…….

하나만 마저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네, 하십시오.

○**우형찬 위원** 돔경기장 관련해서 누수 많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우형찬 위원** 누수 관련해서 역으로 저는 좀 다르게 짚어볼게요.

이사장님 말고 돔구장처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하자보수는 어디 업체에서 합니까?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하자보수를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네.

○**우형찬 위원** 현대산업개발은 시행사잖아요. 하자보수도 직접 현대에서 해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현대에서? 그 밑에 하청을 안 주고?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그 밑에 하청에 한림정공이 있고요, 유원엔지니어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한림정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한림정공에서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네, 누수 관련해서.

○**우형찬 위원** 이 업체는 누가 선정했습니까?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현대산업개발에서…….

○**우형찬 위원** 현대에서 했어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하청 준 것입니다.

○**우형찬 위원** 435구역 한번 보실래요, 114구역하고. 아까 저한테 자료주신 것 있죠?

지붕 누수 위치도 현황을 보는데 한림정공에서 여기 누수를 고친다고 하셨거든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네.

○**우형찬 위원** 435구역을 보면 모두 일곱 차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7회 누수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2015년 11월 됐으면 그다음에 곧장 하자보수 됐습니까? 1차 하자보수는 누가 했어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1차 하자보수도 현대에서 했는데요 그다음에도 계속 7회에 걸쳐서 누수가 된 것입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자보수를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15년 11월 30일에 누수가 발생했으면 이때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5월 15일, 5월 18일 발생했으면 2회 발생했으면 그다음에 한 번 또 했을 테고. 7월 1일, 7월 3일 이쯤해서 또 한 번 했을 테고. 네 번에 대해서 하자보수 공사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요. 됐습니까? 여기 네 번 했습니까? 네? 네 번 됐어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하자보수는 계속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잖아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했는데 계속 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럼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자보

수가 누수가 되든 말든 아직 그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언론보도는 아주 크게 되고 있잖아요, 메인에만 열두 번이 나왔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5년 11월 30일에 발생했으면 그때 고쳤어야죠. 좋아, 그때 했는데도 좀 부실했어. 2015년 5월 15일, 18일 나왔으면 그다음에 또 했을 것 아니에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몇 번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앞으로 시설기간이 끝나면 여기는 비가 빵빵 새도 아무런 말을 못하겠네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일곱 번씩 누수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맡겨놓고 그냥 방치하시는 거예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TF를 구성해서 아예 메우는…….

○**우형찬 위원** 아니, TF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곱 번 누수가……. 그러면 435구역을 몇 번 보수한 거예요? 보수할 때 가보셨어요? 여기 누가 갔어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제가 직접은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똑같은 데 일곱 번 누수가 됐고 분명히 공사는 세 번 내지 네 번 한 것으로 이것을 보면 나오는데 제대로 했냐는 거예요. 지금 하자보수공사를 부실하게 했으니까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네,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TF를 통해서 아예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 것은 다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114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네.

○**우형찬 위원** 지금 거의 다 모든 구역에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하자보수를 대충하게 한 데에는 서울시설공단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네,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이것은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에요. 한 번에 대한 사고는, 누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누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으면 그다음에는 발생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누수에 대한 방수 할 때 같이 업무협조 합니까?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네, 저희들 직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우형찬 위원** 어떻게 합니까? 누수방지 공법부터 같이 의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회의는 같이 합니다. 하는데…….

○**우형찬 위원** 여기 435구역은 어떤 공법으로 하기로 했어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이것은 아예 메우는 작업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메울 수밖에 없다?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네, 지금은 메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공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누수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할 때 관여하세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네,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메트로 같은 경우 하자보수 할 때 똑같이 공사감독관이 가서 공법부터 선정해서 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땜빵 누더기 됩니다, 여기. 그 책임은 처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네,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다른 분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사장님이나 감사님이 아니라 돔구장처장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서영진 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서영진 김상훈 성중기 김인호
김제리 김태수 박진형 신원철
우형찬 장우윤 박중화 황준환
최판술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이지윤
감사	정권수
경영전략본부장	박관선
복지경제본부장	김윤기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
시설안전본부장	이장희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
감사실장	이문호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인사처장	홍병윤
총무처장	안찬
인재개발원장	황택순
안전관리처장	고민희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호영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돔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청계천관리처장	김태임
도로관리처장	박윤용
도로시설처장	이강윤
도로환경처장	배응수
교통정보처장	손병일
공사감독1처장	전용덕
공사감독2처장	강창구
공사감독3처장	김창헌
공동구관리처장	남궁석
상수도지원처장	임근식
주차시설운영처장	전기성
교통시설운영처장	백인걸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
홍보마케팅실장	이순형

○속기사

김용자 최미자